

보도 자료

담 당 과	통계청 인구조사과
담 당 과 장	권오술(權五述)
담당 사무관	김형석(金亨錫)
전 화 번 호	(042) 481-2242~4

- | |
|---|
| <p>◇ 이 자료는 2002년 9월 12일(목) 조건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p> |
|---|

한국의 인구 및 주택

2002. 9. 10.

- | |
|--|
| <p>◇ 통계청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무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1925-2000년)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종합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p> <p>◇ 이에 대한 분야별 연구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사계 전문가 그룹인 「한국인구학회」 및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하였습니다.</p> <p>◇ 통계청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결과를 가지고 “제8회 통계의 날” 기념으로 오는 9월 12일(목)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p> <p>◇ 이 자료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내용 중 인구분야에서 13편, 주택분야에서 6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p> |
|--|

통 계 청

- 목 차 -

I. 연구개요	1
II. 한국의 인구	2
1. 인구의 성장과 변천	2
2. 한국의 출산력	7
3. 사망력	13
4. 해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22
5. 가족 및 가구	25
6. 노동력	31
7. 노인인구의 변화	40
8. 지역간 인구분포와 국내인구이동	44
9. 한국의 도시화	54
10. 한국의 종교	57
11. 한국의 정보화	61
12. 장래가구 추계	64
13. 한국의 인구정책	68
III. 한국의 주택	75
14. 한국인의 경제, 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75
15. 주택재고 및 공가분석	78
16. 주택보급률의 변화	82
17. 한국인의 주거환경 수준	85
18. 가구특성별 주거수준	90
19. 주거 빈곤가구의 특성	93

I.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인구·가구·주택에 관해 과거의 추이, 현황 분석, 장래추정 및 정책대안 제시 등에 관한 종합 연구

2. 연구방향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25-2000)를 중심으로 각종 인구 및 주택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 2개년간(2001-2002년) 2개분야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실시
 - 인구분야 : 한국인구학회(18개분야 18명이 연구)
 - 주택분야 : 한국주택학회(8개 분야 6명이 연구)
- 사업지원과 조정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연구 위원회”를 운영
 - 위원장 : 권태환(서울대), 선주대(사회통계국장)
 - 위 원 : 김두섭(한양대), 김태헌(한국교원대), 윤주현(국토연구원), 권오술(통계청 인구조사과장), 이춘석(통계청 인구분석과장), 장경세(통계청 사회통계과장)

3. 그간의 추진실적

-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종합연구, 분석사업 착수 : 2001. 7월
-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연구 위원회” 결성 : 2001. 8. 23.
- 워크샵 개최 : 2001. 12. 7. 서울통계사무소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집(1925-2000)』 발간 : 2002. 2월

4. 향후 추진 계획

-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 2002. 9. 12.(한양대학교)
- 국문보고서 발간(2002. 12월경) : 『한국의 인구』 『한국의 주택』 등 2종
- 영문보고서 발간(2003. 6월경) : The Population of Korea 및 The Housing of Korea 의 2종 발간

II. 한국의 인구

1.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두섭(한양대학교)¹⁾

1) 한국의 인구변천

한국의 인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인구변천을 마치고 선진국형을 유지

가) 전통적 성장기 (1910년 이전)

-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높은 출산력과 사망력
- 조선 말기까지 정체되고 전형적인 농업사회 - 인구증가는 매우 낮음

나) 초기변천기 (1910~1945년)

-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술, 의약품이 한일합방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 출산력은 높은 수준 유지, 보건개혁과 서양의술의 확산으로 조출생률은 1920년대 초반까지 약간 상승 경향
- 인구증가 속도 급격히 상승 → 대규모 이농현상 (만주와 일본) → 도시화 촉진, 혼인연령 상승

다) 혼란기 (1945~1960년)

- 광복 후 귀환이동, 전쟁동안 피난민 유입 → 남한인구 급격증가 (1945-1950년 60.8%)
- 1950년대 후반 '아기 붐' → 자연증가율: 1955-1960년 28.7%

라) 후기변천기 (1960~1985년)

- 출산력 급격 감소, 사망력 계속 저하 → 인구증가율 빠른 감소
 - 1962년 가족계획사업 출범, 사회경제적 발전 → 출산력 저하에 기여
 -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보건/의료시설 확장 → 사망력 감소 지속

1) duskim@hanyang.ac.kr, 02-2290-0846

○ 1955년 이후 국제이동 미미한 폐쇄인구의 성격 유지

마) 재안정기 (1985년 이후)

○ 1980년대 후반 인구변천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상태에 접근

○ 장래인구추계: 2013년 5,000만 명 돌파, 2023년(5,068.3만 명)이후 인구감소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2024년부터 여자> 남자, 2050년 성비 96.3으로 저하

○ 1985년 이후 출산력 급격 저하 (남녀 차별의식, 남아선호사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소가족가치와 규범 널리 전파)

- 2000년 합계출산율 1.47 - 대체수준, 선진국보다 낮음

→ 1990년대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2002년 출산장려 정책전환

○ 의료보험, 의료시설 혜택 확산 → 사망률 1980년대 후반 계속 저하

○ 국제이동은 1970년대보다 낮은 수준 유지 - 2000년 순이민 1.0만 명

<표 1-1> 한국 인구변천의 단계별 특성

단계	기간	인구증가	출산력	사망률	국제이동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전통적 성장기	-1910	매우 낮은 상태로 안정됨	높음	높음 그러나 소폭변동	거의 없음	전형적 농업사회/기아, 질병, 전쟁에 의한 사망률 상승
초기 변천기	1910-1945	급격히 상승	높음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	일본과 만주로의 대량이동	일본의 식민지화/식민지 경제정책, 보건, 의료 시설 도입
혼란기	1945-1960	급격한 증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정체	높음	중간 수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높음	일본과 만주에서 대량귀환/북한에서 피난민 유입	광복,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사회적 혼란, 극심한 경제적 곤란
후기 변천기	1960-1985	증가를 계속 떨어짐	급격히 떨어짐	계속 떨어짐	1970년 이후 이민 약간 증가	근대화,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정책의 실시
재안정기	1985-	계속 떨어짐/ 이론적 감소 상태 돌입	재 생산수준 이하로 떨어짐	더욱 떨어짐	낮은 수준 유지	지속적 경제성장/사회발전, 교육팽창,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보험 실시

<표 1-2> 한국의 인구성장, 1910-2000

연도(월.일)	인구 (1,000명)	연평균 증가율(%)		
		자연증가	국제이동	총증가
《분단 이전》				
1910 (10.1)	17,427*			
1915 (10.1)	17,656*	4.0	-1.4	2.6
1920 (10.1)	18,072*	7.0	-2.3	4.7
1925 (10.1)	19,020	12.0	-1.8	10.2
1930 (10.1)	20,438	18.7	-4.3	14.4
1935 (10.1)	22,208	20.2	-3.6	16.6
1940 (10.1)	23,547	20.6	-8.9	11.7
1944 (5.1)	25,120	20.2	-2.2	18.0
《한국(남한)》				
1945 (9.1)	16,136*			
1949 (5.1)	20,167	18.9	41.9	60.8
	19,904**			
1955 (9.1)	21,502	7.0	5.3	12.3
1960 (12.1)	24,989	28.7	-0.1	28.6
1966 (10.1)	29,160	26.6	-0.1	26.5
1970 (10.1)	31,435	19.0	-0.2	18.8
1975 (10.1)	34,679	20.2	-0.6	19.6
1980 (11.1)	37,407	15.9	-1.0	14.9
1985 (11.1)	40,420	16.4	-0.9	15.5
1990 (11.1)	43,390	14.9	-0.7	14.2
1995 (11.1)	44,554	10.7	-5.2	5.3
2000 (11.1)	45,985	9.0	-2.7	6.3

주: 1) * 추정인구; 2) ** 1955년 경계 추정인구; 3) 이 표에서 외국인은 제외되었음; 4) 이 표에 제시된 인구는 해당 연도의 인구센서스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각 인구센서스의 완전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를 초래할 수 있음.

2)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및 정책

현재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

- 우리나라 인구변천은 “인구변화와 대응이론(Davis)”에 부합되게, 인구 성장 속도가 높아지면서 먼저 국내이동, 결혼지연, 인공유산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혼인 출산력이 감소하는 경로를 거침
- 현재 출산력이 대체수준보다 낮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아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

3) 세계 속의 한국인구, 2000

선진국보다 인구는 젊은 반면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을 보임

- 한국의 인구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 인구부양비는 생산인구 100명당 9.6명이 적고
 - 평균연령은 5.6세 낮고
 - 합계출산율은 0.06명이 낮고
 - 평균수명은 0.6세 낮음

<표 1-3> 세계 속의 한국인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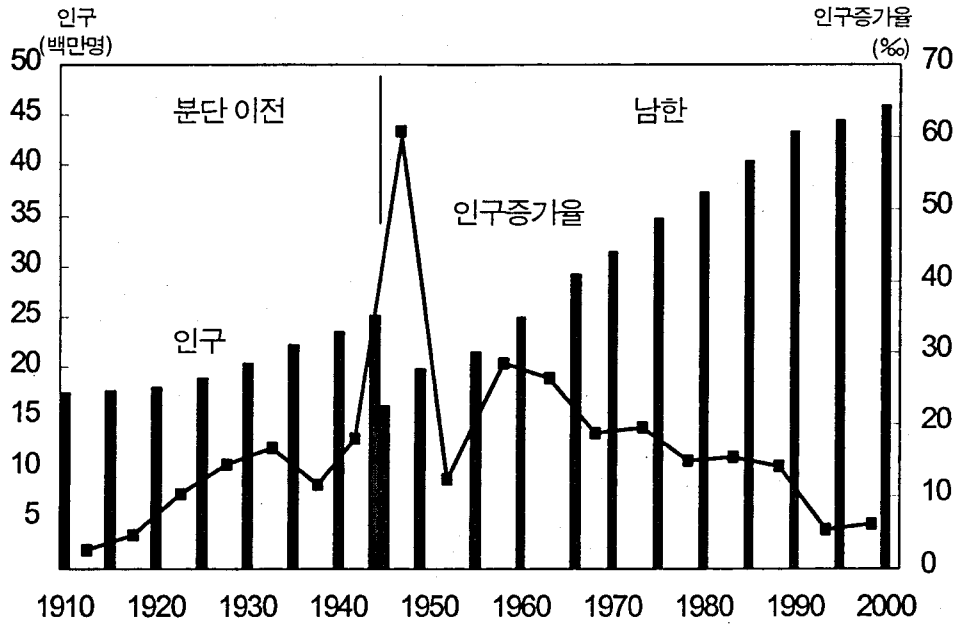
인구지표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한국
인구 (백만명)	6,057	1,191	4,865	47
인구밀도 (명/km ²)	45	23	59	472
도시인구비율 (%)	47.0	76.0	39.9	81.9
중위연령	26.5	37.4	24.3	31.8
부양인구비	58.4	48.3	61.1	38.7
고령화지수	23.1	78.2	15.5	35.0
1995-2000 인구증가율 (%)	13.5	3.0	16.2	7.8
1995-2000 합계출산율	2.82	1.57	3.10	1.51
1995-2000 평균수명	65.0	74.9	62.9	74.3

주: 1) 부양인구비=[{(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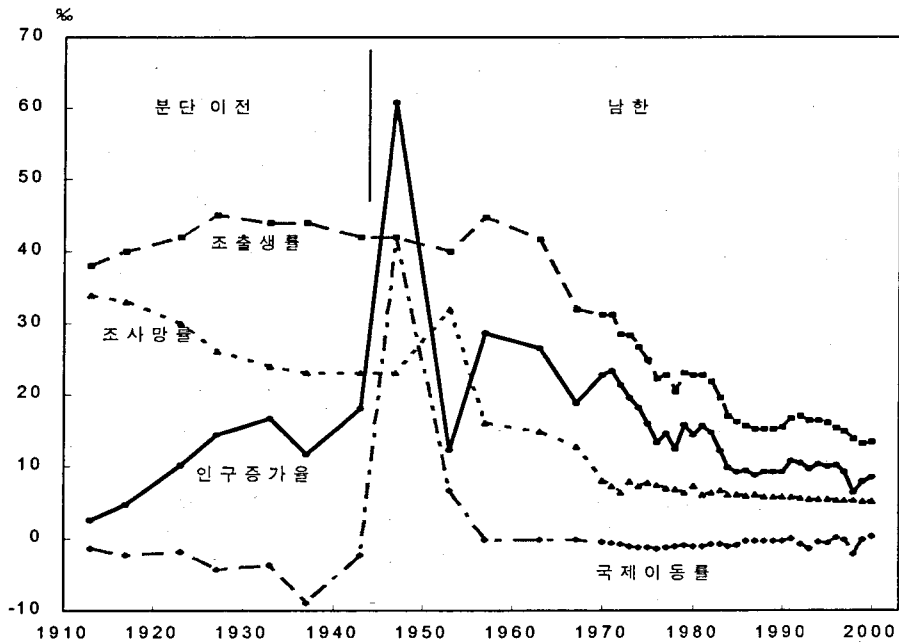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UN(2001).

<그림 1-1> 한국의 인구성장 및 인구증가율의 추세, 1910-2000



<그림 1-2> 한국의 인구증가율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추세, 1910-2000



2. 한국의 출산력

전광희(충남대학교)²⁾

1) 출산력 변천

한국사회의 지나친 경쟁과열, 고도 대중소비,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
갈등이 출산력 감소 초래

【용어해설】 합계출산력(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수

【용어해설】 대체출산력(replacement level)은 합계출산력이 2.1명이 되는 수준이며, 이 수준이 지속되면 인구규모와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

○ 한국의 출산력 변천 단계

- 준비기간(1910년~1960년) : 합계출산력은 6.3명으로 거의 고정
 - 사망력 초기 변천기(1910-1945) 및 정치적 혼란기(1945-1960)로 구분

- 제 1단계 전반기 : 1960-1975
 - 1962년 : 가족계획사업 시작
 - 1966년 백말띠 해 대도시 출산율 급감
 - 1960년대초반부터 피임약 시장 공급

- 제 1단계 후반기 : 1975-1985
 - 젊은 부부의 출산행동에 “이상자녀수, 희망자녀수, 출산규제, 자녀가치” 등을 고려하면서 출산행동에 “혁신”의 개념을 도입

- 제 2단계 : 1985이후
 - 1983년이후 출산율이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짐
 - 남아선호는 높은 피임 효율성과 인공유산으로 출산력 저하의 템포를 가속화

2) jkh96@cnu.ac.kr, 042-821-6339

<표 2-1> 출산력 변천단계

변천단계	연도	합계출산력	비고
준비기간	1910-1960	6.3 내외	· 사망력 초기 변천기(1910-1945) 및 정치적 혼란기(1945-1960)로 구분
1단계 전반 (1960-1975)	1960-1965	6.0	· 1962년 가족계획사업 착수 · 1966년 백말띠 해 대도시 출산을 급감 · 1960년대초반부터 피임약 시장 공급
	1970	4.5	
1단계 후반 (1975-1985)	1975	3.5	· 자녀출산을 피임으로 조절
	1980	2.8	
2단계 (1985이후)	1985	1.7	· 1983년이후 대체 출산력이하로 떨어짐 · 남아선호가 출산력 저하를 가속화
	1990	1.6	
	1995	1.7	
	2000	1.5	

2) 출산력 변천의 중간변수

1990-2000년에는 혼인연령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를 주도한 가운데, 인공유산의 출산 억제력은 크게 감소

-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여성의 연령은 15-24세와 35세 이상임
 - 15-24세 여성들은 혼인연령 상승과 출산지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 35세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산규제

- 1955-2000년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을 보면
 - 1960-1965년 : 혼인연령, 인공유산
 - 1965-1970년 : 피임, 인공유산
 - 1975-1985년 ; 피임
 - 1990-2000년 : 혼인연령

- 인공유산의 출산억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배우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있음

<표 2-2> 합계출산율 퍼센트 변화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1955- 1960	1960- 1965	1965-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합계출산율 변화율(%)	5.6	-16.8	-17.6	-13.4	-24.6	-25.7	-18.3	1.2	-5.4
(a) 혼인상태별 구성	-3.9	-6.3	-3.7	-3.5	-5.6	-6.4	-6.5	-5.8	-9.9
- 결혼연령	-6.9	-7.6	-3.4	-3.7	-4.9	-6.7	-7.9	-5.6	-9.6
- 이혼·사별	3.0	1.3	0.5	0.2	0.7	0.3	1.4	-0.2	-0.3
(b)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9.5	-10.5	-14.1	-9.9	-19.1	-19.3	-11.8	7.0	4.5
- 피임	-	-1.7	-9.5	-5.9	-23.0	-23.9	-13.4	-5.3	-7.4
- 인공유산	-3.1	-5.1	-4.6	-4.0	3.9	4.6	1.6	12.3	11.9
- 기타	11.0	-3.8	-	-	-	-	-	-	-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60년 21.5세에서 2000년 26.5세로 5.0세 증가

【용어해설】 미혼율 기초의 평균초혼연령(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은 15-49세까지의 여성의 미혼율을 누적시켜 Hajnal 방식으로 간접추계한 초혼연령임

【용어해설】 유배우 출산율(TMFR:total marital fertility rate)은 혼인한 여성의 출산율을 의미

- 우리나라 여성의 미혼율로 계산한 평균초혼연령(SMAM)은 1960년 21.5세에서 2000년 26.5세로 5.0세 상승

- 여성의 유배우율 감소 크기
 - 20-24세 : 1960년 59.1% → 2000년 10.7%
 - 25-29세 : 1960년 93.1% → 2000년 59.1%
 - 30-34세 : 1960년 91.7% → 2000년 87.0%

-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미혼의 경우는 최근의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1~2%에 불과하여, 서구의 6~15%와 비교할 때 아주 미미
- 유배우 출산율(TMFR: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1960년 442‰(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에서 2000년 364‰으로 감소

<표 2-3>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비율 : 1960-2000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5~19	0.070	0.038	0.028	0.026	0.017	0.009	0.005	0.008	0.007
20~24	0.648	0.477	0.423	0.372	0.337	0.281	0.195	0.167	0.107
25~29	0.931	0.898	0.884	0.868	0.849	0.818	0.773	0.699	0.591
30~34	0.917	0.939	0.946	0.944	0.943	0.931	0.924	0.914	0.869
35~39	0.882	0.892	0.920	0.932	0.934	0.935	0.928	0.922	0.907
40~44	0.821	0.827	0.848	0.882	0.869	0.884	0.903	0.900	0.889
45~49	0.760	0.760	0.769	0.791	0.867	0.882	0.861	0.864	0.861
초혼연령 (SMAM)	21.5	22.9	23.3	23.7	24.1	24.7	24.8	25.4	26.5

3)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차별출산력

1997년 이후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생성비는 점차 정상화

【용어해설】 출생성비는 아동출생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로 자연출생성비는 105~108명 수준임

-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제2단계의 출산력변천에서 시작
- 출생순위별로는 셋째이상의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 자녀보다 훨씬 높음
 - 하지만 1995년 이후는 유배우 여성의 셋째 자녀 출생이 10%미만이어서 전체 출생성비에는 영향이 미미
 - 첫째나 둘째의 경우에도 1997년 이후 출생성비가 약간씩 정상화되고 있음

<표 2-4>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출생성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1985	109.5	106.0	107.8	129.0	146.8
1986	111.7	107.3	111.2	129.0	149.8
1987	108.8	104.1	109.1	138.5	148.0
1988	113.3	107.2	113.2	134.7	182.0
1989	111.7	104.1	112.5	164.5	198.0
1990	116.5	108.5	117.0	188.9	209.3
1991	112.4	105.7	112.5	179.8	194.6
1992	113.6	106.2	112.5	192.0	213.1
1993	115.3	108.5	117.0	189.2	235.8
1994	115.2	106.5	114.7	202.6	224.9
1995	113.2	105.8	111.7	177.5	204.3
1996	111.6	105.3	109.8	164.2	185.1
1997	108.2	105.1	106.3	133.6	153.9
1998	110.1	106.0	108.1	145.0	153.5
1999	109.6	105.6	107.6	142.1	154.7
2000	110.2	106.2	107.4	141.7	154.9

○ 모의 거주지와 출산율의 관계에서는, 면부, 읍부, 시부의 순으로 높았음

- 2000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시부 1.25명, 읍부 1.53명, 면부 1.75명
-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 속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빠르게 나타남

○ 모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았으나, 출산수준의 감소속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느린 것은 아니었음

- 2000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불취학·초등학교 졸업 여성은 2.6명, 중고등학교 졸업 여성은 1.38명, 대졸이상 여성은 0.8명을 보임

4) 장래 출산력의 예측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저출산이 더욱 낮아질수도 있음
 -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출산력 변천 1단계(1960-1985)에는 20% 수준이었으나, 1990~2000년간에는 8%대를 유지
- 성선택 문제가 출산력 저하를 가속화시킬수도 있음
 - 한국 부부들의 이상자녀수 즉,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고 셋째가 아닌 둘째나 첫째부터 성선택 인공유산을 실천하는 경우
- 생애미혼과 혼인연령 상승 및 이혼율의 증가로 출산력 저하가 예상

3. 사망력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³⁾

1) 사망력 변천

1910년대 연간 인구천명당 33.7명이던 사망률이 2000년에는 5.2명으로 감소

○ 한국의 사망력 변천은 1900년경부터 시작

- 평균수명의 남녀 평균이 1906-10년에 23년 정도
- 1955-1960년에는 52년으로 증가
- 1980년대 말에는 남녀 평균 70년을 초과

○ 한국의 사망력 변천은 공중보건향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사회경제개발의 성공으로 사망력이 감소

<표 3-1> 사망력 변천과정

	사망변천 유형			
	I	II	III	IV
지 역	서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동과 남유럽 일본	'경제사회개발 주도' 개발도상국	기타 개발도상국
사망률감소의 주요원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경제개발후 공중보건향상	공중보건향상후 사회경제개발	현대의술의 도입과 확산증
사망력변천의 시기				
시작(평균수명 30-50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까지	19세기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20세기 초
변천(평균수명 50-70세)	1920년대에서 1950년대초까지	1930-1950년대	1950년 이후	1950년 이후
끝(평균수명 70세)	1950년대	1950-1960년대	1970년대 이후	(진행중)

자료: Kim(1990: 143, Table 5-1)⁴⁾을 보완.

3) thkim@cc.knue.ac.kr, 043-230-3612

4) Kim, T. H.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보통사망률(인구 천 명당 사망자수)의 감소

- 1910-15년에 33.7이던 것이 산업화가 시작되어 1960-65년에는 3분의 1 이하인 10.5로 추정
- ‘베이비 붐’으로 높아진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0이하로 낮아지면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 1990년에 5.8에 도달한 후 6.0미만에서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은 계속 낮아져서 인구증가폭은 출생률의 감소정도 만큼씩 낮아지고 있음

<표 3-2> 보통사망률의 추이, 1910-2000

연 도	보통사망률(1000명당)	연 도	보통사망률(1000명당)
1910-15	33.7	1975	7.7
1920-25	29.5	1980	7.3
1930-35	23.3	1985	6.0
1940-45	19.5	1990	5.8
1950-55	14.3	1995	5.4
1960-65	10.5	2000	5.2
1970	8.0		

자료: 1) 1910-1965: 조사통계국 추정치(공세권 외, 1983: 62).⁵⁾

2) 1970 이후: 통계청(2001a: 28).⁶⁾

2) 성,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1970년부터 30년동안 남녀 모두 20대까지 사망률의 감소속도가 빨랐음. 특히, 15-19세에서 남녀 각각 83%와 88% 감소

○ 1970년 이후 30년 동안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

- 남자의 보통사망률이 37%{1-(9.2/5.8)} 감소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31% 감소

5) 공세권 등 (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6) 통계청 (2001a)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연령별 사망률의 경우는
 - 남녀 모두 20대까지 사망률의 감소속도가 빨랐으며(15-19세에서 남녀 각각 83%와 88% 감소)
 - 30대 이후에는 감소속도가 서서히 둔화되었지만 감소의 속도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빨랐음
 - 그러나 40대 이후부터 남녀의 차는 점차 줄어서 70-74세에서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감소는 남녀 각각 54%와 52%로 비슷

<표 3-3> 성·연령별 사망률

(단위 : 천 명당)

	남 자			여 자		
	1970	1990	2000	1970	1990	2000
전체	9.2	6.6	5.8	6.8	5.0	4.7
0~4	4.7	3.7	1.3	4.5	3.2	1.2
5~9	2.6	0.7	0.3	2.3	0.5	0.2
10~14	2.1	0.6	0.2	1.7	0.4	0.2
15~19	3.5	1.2	0.6	2.5	0.5	0.3
20~24	4.2	1.5	0.9	3.5	0.7	0.4
25~29	3.8	1.9	1.1	3.7	0.8	0.5
30~34	4.0	2.5	1.4	3.3	1.0	0.7
35~39	5.5	3.7	2.2	4.1	1.4	0.9
40~44	9.1	5.4	3.6	5.3	2.0	1.3
45~49	14.9	9.0	5.5	7.0	3.4	1.8
50~54	22.4	12.3	7.9	10.0	4.7	2.7
55~59	33.1	17.1	12.7	14.2	6.9	4.5
60~64	47.5	26.7	18.2	20.4	11.1	7.0
65~69	72.9	40.8	26.3	31.9	18.5	12.0
70~74	95.5	64.4	43.7	49.1	33.0	23.8
75~79	225.2	97.0	74.6	179.2	55.9	44.0
80+	-	187.0	152.1	-	137.1	121.2

주 : 1970년의 75~79세는 75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2000인구동태통계연보』, 2001.

3) 성, 연령별 기대여명

평균수명이 1950년초 남자는 51.1세, 여자는 53.7세 → 1999년 남자 71.7세, 여자 79.2세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55-60년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으나, 1999년에는 남자 71.7세, 여자 79.2세로, 남자는 20.6세 여자는 25.5세가 연장
-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1985년(8.37세)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이후 줄어드는 추세

<표 3-4> 연도별 평균수명의 추이, 1971-99

(단위 : 세)

연 도	남 자	여 자	차(여자 - 남자)
1955-60	51.10	53.70	2.60
1960-65	52.70	57.70	5.00
1966	59.70	64.10	5.60
1971	58.99	66.07	7.08
1973	59.61	67.03	7.42
1975	60.19	67.91	7.72
1977	60.75	68.74	7.99
1979	61.28	69.51	8.23
1981	62.28	70.54	8.26
1983	63.21	71.47	8.26
1985	64.45	72.82	8.37
1987	65.78	74.04	8.26
1989	66.84	75.08	8.24
1991	67.74	75.92	8.18
1993	68.76	76.80	8.04
1995	69.57	77.41	7.84
1997	70.56	78.12	7.56
1999	71.71	79.22	7.51

자료 : 1) 1955-60: 고갑석, 김일현(1964), 2) 1960-65: 이동우(1973), 3) 1966: 조사통계국(1971), 4) 통계청. 『1971~1997년 생명표』. 1999, 5) 통계청. 『1999년 생명표』. 2001.

4) 차별사망력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망력이 낮으며,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

○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인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젊은 연령계층(25-34 및 35-44)에서 증가현상이 뚜렷

- 35-44세 남자의 경우 무학 자의 사망률이 초대이상 자 보다 1970년에 약 4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12배로 높아졌음
-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3배에서 10배로 증가

○ 이러한 현상을 연령이 높을수록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졌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유형을 보였다.

<표 3-5> 성, 연령(10세 계급) 및 교육정도별 사망비의 변화, 25-64세, 1970-2000

연령 및 교육정도	남자				여자			
	1970 ¹⁾	1980 ²⁾	1990	2000	1970 ¹⁾	1980 ²⁾	1990	2000
25 - 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3.41	8.51	6.48	8.16	2.20	8.55	14.77	15.58
초 등	1.58	2.30	4.42	7.15	1.12	1.49	3.03	8.54
중·고	0.58	0.63	0.96	1.35	0.44	0.46	0.74	1.11
초대이상	0.35	0.32	0.40	0.48	0.29	0.38	0.50	0.57
35 - 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1.53	3.35	4.69	4.40	1.15	2.41	4.06	4.59
초 등	1.38	1.77	2.81	4.64	1.09	1.07	1.64	2.86
중·고	0.60	0.58	0.78	1.07	0.50	0.51	0.67	0.89
초대이상	0.36	0.30	0.33	0.36	0.37	0.33	0.44	0.45
45 - 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0.96	1.47	1.77	2.41	0.95	1.17	1.28	2.07
초 등	1.32	1.34	1.67	2.17	1.19	1.02	1.19	1.39
중·고	0.65	.65	0.77	0.89	0.66	0.62	0.20	0.79
초대이상	0.41	0.39	0.43	0.43	0.52	0.55	0.49	0.54
55 - 64 ³⁾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0.84	0.92	1.08	1.32	0.89	0.91	0.92	1.09
초 등	1.54	1.29	1.32	1.37	1.70	1.27	1.16	1.13
중·고	0.69	0.74	0.84	0.90	1.02	0.88	7.63	0.77
초대이상	0.45	0.50	0.54	0.57	0.46	0.78	0.53	0.52

주 : 1) 1970 - 1972 년간의 평균치임. 2) 1979 - 1981 년간의 평균치임.

3) 1990년은 55-59세 자료임.

자료 : 1)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및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 2) Kim (1990 : 65).

남녀 모두 미혼, 사별, 이혼자의 사망률이 유배우 보다 높음

○ 지난 30년간 결혼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 유배우 인구와 미혼 인구간의 차이는 연령 및 남·여 모두 점차 축소
- 평균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25-34세의 남녀 모두 미혼과 유배우의 사망률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

○ 한편, 45-55세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를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화한 자료에서도,

- 남녀 모두 미혼자와 사별·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하여 약 2배(기타 여자)에서 약 4배(미혼남자)나 높게 뚜렷하게 차이

〈표 3-6〉 성·연령(10세 계급) 및 혼인 상태별 사망비의 변화, 25-64세, 1970-2000

연령 및 혼인상태	남자				여자			
	1970 ¹⁾	1980 ²⁾	1990	2000	1970 ¹⁾	1980 ²⁾	1990	2000
25 - 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혼	1.89	1.77	1.48	1.28	6.27	4.37	2.45	1.38
유배우	0.65	0.64	0.67	0.68	0.61	0.57	0.64	0.75
기 타 ³⁾	5.56	7.28	7.00	5.69	2.76	5.11	7.92	6.28
35 - 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혼	13.57	8.25	6.09	3.07	42.01	23.78	8.49	2.92
유배우	0.82	0.83	0.77	0.70	0.74	0.71	0.73	0.81
기 타 ³⁾	4.88	5.18	4.38	3.65	1.81	2.36	2.70	2.50
45 - 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혼	17.07	10.70	7.22	4.10	47.06	33.85	15.47	3.70
유배우	0.88	0.87	0.87	0.83	0.84	0.78	0.78	0.85
기 타 ³⁾	3.67	3.74	3.25	2.62	1.20	1.41	1.67	1.59
55 - 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혼	15.94	9.40	7.79	3.46	37.35	30.49	19.27	5.28
유배우	0.87	0.87	0.89	0.92	0.90	0.85	0.78	0.84
기 타 ³⁾	2.32	2.57	2.39	1.85	1.02	1.09	1.23	1.28

주 : 1) 1970 - 1972 년간의 평균치임.

2) 1979 - 1981 년간의 평균치임.

3) 사별, 이혼 및 별거를 포함.

자료 : 1)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해당연도.

2)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 해당연도.

3) Kim (1990 : 67).

5) 사망원인별 사망력

1990년 이후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사망 원인으로 고정

○ 한국인의 연도별 10대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 1966년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
- 1980-81년에는 악성 신생물과 고혈압성 질환
 - 1966년에 10대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위염과 독감, 홍역은 빠지고, 사고, 간질환, 자살 등이 새로 10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포함
- 1990년 이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원인으로 고정

<표 3-7> 10대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 전 연령, 1966-2000

순위	1966 ¹⁾	1980-81 ²⁾	1990 ³⁾		2000 ³⁾	
			사인	사망률 ⁴⁾	사인	사망률 ⁴⁾
1	폐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110.4	악성신생물	122.1
2	결핵 ⁵⁾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75.6	뇌혈관질환	73.2
3	중추신경계질환	순환기계질환	심장질환	47.4	심장질환	38.5
4	악성신생물	사고 ⁶⁾	운수사고	39.7	운수사고	25.4
5	위염,장염등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35.6	간질환	22.9
6	사고 ⁶⁾	결핵 ⁵⁾	간질환	33.8	당뇨병	22.6
7	독감	간질환	당뇨병	11.8	만성하기도질환	16.8
8	심장질환	기관지염 및 천식	호흡기계결핵	11.0	자살	14.6
9	홍역	폐렴	만성하기도질환	10.5	고혈압성질환	8.9
10	기관지염	자살	자살	9.8	폐렴	8.2

주 : 1) 제 7 차 개정 ICD 50대 항목 기준. 2) 제 9 차 개정 ICD 55대 항목 기준
 3) 제 2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인 순위 선정을 위한 선택 56항목의 사망원인 기준 (인구동태통계연보(2001) : 270-272). 4)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입.
 5) 모든 결핵 포함. 6) 모든 사고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1) 및 생명표

6) 성, 연령별 사망원인

40대에서 남녀간 사망률 性比가 가장 높은 것은 간질환(876.9)이며, 운수 사고(395.5)와 심장질환(390.6)도 전체평균(296.6)보다 높게 나타남

- 남자 40-49세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1.0이었으며, 이것은 여자 (148.7)의 2.9배에 해당
- 40대 남자 사망의 5대 주요원인은 악성 신생물, 간질환, 운수사고,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
 - 이중에서 사망률 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간질환(876.9)이었으며, 운수사고 (395.5)와 심장질환(390.6)도 전체평균(296.6)보다 높았음

<표 3-8> 남자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성비, 30-59세(10세계급), 56항목, 2000

연령 및 사망원인 ¹⁾	사망률 ²⁾		사망률 성비 (여자 :100.0)	상대적 성비 (전체성비 :1.00)
	남자	여자		
30 - 39전체	179.0	77.2	231.8	1.00
1) 악성 신생물	25.3	23.8	106.3	.46
2) 간 질환	16.4	2.1	780.9	3.37
3) 운 수 사 고	32.7	8.2	398.8	1.72
4) 심 장 질환	10.7	3.4	314.7	1.36
5) 뇌혈관 질환	7.8	3.8	205.2	.88
40 - 49전체	441.0	148.7	296.6	1.00
1) 악성 신생물	98.2	57.1	171.9	.58
2) 간 질환	68.4	7.8	876.9	2.95
3) 운 수 사 고	43.9	11.1	395.5	1.33
4) 심 장 질환	33.2	8.5	390.6	1.31
5) 뇌혈관 질환	31.0	14.6	212.3	.71
50 - 59전체	1007.3	355.6	283.2	1.00
1) 악성 신생물	341.8	136.7	250.0	.88
2) 간 질환	117.3	19.1	614.1	2.17
3) 운 수 사 고	61.1	19.2	318.2	1.12
4) 심 장 질환	76.8	23.9	321.3	1.13
5) 뇌혈관 질환	99.7	53.1	187.7	.66

주 : 1) 남자 40-49세의 사망원인 상위 5항목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비의 변화를 비교

2) 2000년 사망신고자료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1), 장래인구추계(2001), 사망원인통계연보(2001)

7) 사인제거시 평균수명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 순환기계질환 및 각종 사고사가 없다면,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85.0년과 87.2년으로 증가

○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 순환기계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을 제거한다면 1999년에 남자의 경우 평균수명이 13.28년이 증가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7.95년이 증가

- 남자는 85.0년, 여자는 87.2년으로 증가
-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도 크게 감소

4. 해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권태환(서울대학교)7)

1) 중국 조선족 공동체

중국 조선족 사회는 도시 공동체 위주로 바뀌고,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남자와의 혼인,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 수준 등으로 인해 5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들 전망

- 중국 조선족 사회는 농촌 공동체 중심에서 도시 공동체 위주로 바뀌고, 조선족 인구의 지역적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발생
 - 또한 활발한 외지로의 노동이동은 전통적 지역 공동체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초래
- 거기에 더하여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남자와의 혼인,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 수준 등으로 인해 조선족 인구는 급격한 감소기에 접어들었음
- 조선족들은 얼마안가서 연변 자치주는 자치주의 위상을 상실하고, 조선족 인구는 5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2) 재일동포사회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사회는 문화적 동화와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동포 사회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

- 일본의 재일 동포는 2세와 3세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급속한 일본 문화로의 동화를 경험하고 있음
- 혼인을 통한 귀화와 그 자녀들의 일본 국적 취득으로 1990년 이래 재일 동포의 수는 감소기에 접어들었음

7) thkwon@orome.snu.ac.kr, 02-880-6404

- 한 때, 외국인 가운데 제일 동포의 비율은 90%를 넘었으나 이제는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아직도 계속 감소

○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문화적 동화와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제일 동포 사회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

3) 미국의 한인

미국 한인의 정치세력화는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

○ 미국의 한인 공동체는 그 속도가 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거주지역 역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한인 사회는 다른 나라의 한인 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구성원 배경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는 미군의 신부나 양자로 이주한 사람들, 유학 후 정착하게 된 사람들, 가족 초청 이민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배경에 따라 직업과 생계활동, 생활세계도 다르게 나타남

○ 미국의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한인 동우리”, 또는 “미국 속의 한국“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국 주류 사회는 물론 소수 인종들로부터의 차별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실정

- 정치세력화는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언급

4) 해외 한인의 정체성과 정책적 고려

비교적 역사가 긴 조선족과 제일 동포 사회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시급한 과제

-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해외 동포 정책은 앞으로 해외 한인 사회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특히 해외 한인이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
- 비교적 역사가 긴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동포 사회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시급한 과제임
- 해인 한인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일시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들은 사실상 해외 한인 사회에 속하지 않거나 주변인에 불과함
 - 그러나 이들과 해외 영주자들 사이에는 접촉이 불가피하며, 접촉의 양식에 따라 심한 갈등의 소지도 있어, 이 문제도 중요한 정책의 고려 사항의 하나로 판단

5. 가족 및 가구

김정석(동국대학교)⁸⁾

1) 1인 및 부부가구 거주 인구비율

지난 20년 동안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증가해 온 반면, 3세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감소

○ 1980년에 1인가구 비율은 1.1%로 전체 가구원 100명당 1명 정도였지만, 2000년에는 5.1%로 상승하여 전체 가구원 100명당 5명의 꼴로 1인가구

- 부부가구의 경우도 1980년 3.2%에서 2000년 8.8%로 상승

<표 5-1> 일반가구원의 가구형태별 구성비(1980-2000)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1인가구	1.1	1.7	2.6	3.9	5.1
부부가구	3.2	3.9	5.2	7.3	8.8
2세대가구	69.1	70.0	71.0	71.2	70.4
3세대이상가구	24.3	21.6	18.7	15.5	13.6
기 타	2.3	2.7	2.4	2.2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15세 이상 무배우자의 1인가구 형성비율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미혼의 순

○ 1980년도에 이혼의 16.8%, 사별의 8.3%, 그리고 미혼의 2.3%였던 1인가구 비율이 2000년에 각각 32.2%, 30.6%, 10.1%로 상승

○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1990년에 이르러 보여지기 시작하며, 2000년 현재, 도시가 14%, 농촌이 22.2%로 나타남

8) chkim108@dongguk.edu.ac.kr, 02-2260-3258

○ 연령대별로 보면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낮아지는데, 특히 2000년에 이러한 유형은 뚜렷해짐

- 저연령층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주로 미혼에서 늘어나며, 고연령층에서의 증가는 이혼이나 사별에서 증가

<표 5-2> 무배우자의 성,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1980-2000)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3.7	5.4	8.0	12.3	15.6
성 별					
남성	2.6	4.1	6.8	10.7	13.2
여성	4.7	6.6	9.1	13.5	17.5
거주지역					
도시	3.6	5.3	7.7	11.1	14.0
농촌	3.8	5.6	9.1	16.8	22.2
결혼상태					
미혼	2.3	3.7	5.5	8.3	10.1
사별	8.3	11.5	16.4	23.9	30.6
이혼	16.8	20.8	26.1	30.1	32.2
연 령					
15~24	1.6	2.2	2.5	3.7	3.9
25~34	6.5	9.6	14.4	17.2	17.5
35~44	8.6	13.0	19.4	27.0	30.4
45~54	8.2	10.2	15.1	22.1	29.0
55~64	11.1	15.2	21.6	29.3	36.2
65 +	8.1	11.8	17.3	25.4	33.7

나) 15세 이상 유배우자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농촌의 유배우 부부가구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자녀의 도시 이주로 농촌에 남은 고연령층 부부가구가 늘어나기 때문

○ 유배우의 부부가구 비율은 1980년에는 도시와 농촌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도 이후로는 그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25~34세부터 적어지면서 45~54세부터는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 이는 자녀없는 젊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부부가구를 벗어났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떠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생애주기별 부부가구의 형성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1980년대보다 2000년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남

<표 5-3> 유배우자의 거주지역 및 연령대별 부부가구 거주비율(1980-2000)

(단위:%)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전체	7.5	8.8	11.1	14.7	17.5
지역					
도시	7.4	7.8	9.1	14.8	13.7
농촌	7.7	10.5	16.8	14.6	30.4
연령					
15~24	24.3	28.2	36.4	38.1	37.3
25~34	7.7	8.4	10.4	12.3	15.0
35~44	1.6	2.0	2.4	3.7	4.3
45~54	4.4	5.5	7.3	10.9	13.1
55~64	13.0	17.2	23.8	32.1	35.2
65 +	22.0	27.2	36.5	50.0	55.8

2)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가) 아동들의 거주형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비율이 1980년 24.1%에서 2000년 15.3%로 감소했으며, 아동들이 거주하는 가구내 15세미만 아동들의 평균인원수도 꾸준히 감소

○ 가구내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1980년 24.1%에서 2000년 15.3%로 감소하여 3세대이상 가구 비율 하락을 반영하고 있고,

- 출산율의 감소로 아동들이 거주하는 가구내 15세미만 아동들의 평균인원수도 꾸준히 감소

- 거주지역별로는 편모와 사는 아동비율은 도시가 높으며, 어느 부모와도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은 농촌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아동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부모 모두와 거주하는 비율이 낮아지는데,
 - 2000년의 경우 0~4세에서 94.5%이지만 5~9세 91.5%, 그리고 10~14세에서는 87.6%로 낮아지면서 아동들이 성장과 함께 부모들이 사망, 별거,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짐을 반영

<표 5-4> 15세미만 아동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거주형태(1980, 2000년)

(단위 : %)

	1980						2000					
	전체	도시	농촌	0-4	5-9	10-14	전체	도시	농촌	0-4	5-9	10-14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비율	89.0	88.8	89.2	93.2	90.0	84.4	91.2	91.6	89.4	94.5	91.5	87.6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1	1.0	1.2	0.5	1.1	1.6	2.0	1.9	2.6	1.0	2.0	3.1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6.0	6.8	5.2	3.0	5.8	8.9	4.2	4.5	3.1	2.2	4.2	6.4
부모가 없는 비율	3.9	3.4	4.5	3.3	3.1	5.2	2.5	2.0	4.9	2.3	2.4	2.9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24.1	17.9	31.4	26.4	23.8	22.5	15.3	12.9	26.0	15.5	15.1	15.5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6	0.4	0.9	0.3	0.7	0.8	0.9	0.6	2.2	0.7	0.9	1.2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0.7	92.5	88.4	87.5	92.4	91.6	93.6	95.0	87.7	92.2	94.0	94.7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7.1	5.2	9.5	11.4	6.3	4.3	5.4	4.1	10.9	7.1	5.1	4.0
가구내 15세미만 평균아동수	2.7	2.5	3.0	2.5	3.0	2.7	1.9	1.9	2.0	1.8	2.1	1.8

나) 고령자 거주형태

자녀없이 사는 남성노인들은 부부가구 거주비율이, 여성노인들은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80년과 2000년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크게 감소

- 거주지역별로 보면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성인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에 이주한 때문으로 보임
- 성별로 보면
 - 자녀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 1인가구에 비율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 부부가구 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 증가하는 거주형태 :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가구주 부모인 비율
 - 감소하는 거주형태 : 자녀없이 사는 비율, 부부가구,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 가구주 비율, 가구주 배우자 비율 등

<표 5-5>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대별 거주형태(1980, 2000년)

(단위: %)

	1980							2000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자녀없이사는 비율	19.5	22.8	20.7	15.7	10.7	8.9	5.3	50.9	56.0	54.7	47.8	37.1	25.6	18.8
1인가구 거주비율	4.8	5.0	4.9	5.0	3.6	4.5	2.4	16.8	14.3	19.2	20.2	17.2	13.8	7.3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2.8	10.3	7.1	4.5	2.5	0.4	29.2	36.4	30.6	23.2	16.0	7.9	5.7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61.7	52.0	63.1	71.9	77.5	80.3	83.0	35.7	24.6	34.0	44.3	56.3	67.9	73.4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	18.8	25.1	16.2	12.4	11.8	10.7	11.7	13.4	19.4	11.3	7.9	6.6	6.5	7.9
가구주 비율	32.2	41.2	32.2	22.1	16.0	11.5	7.7	51.1	56.6	53.9	48.6	38.3	25.3	15.4
가구주 배우자 비율	9.1	13.9	7.9	4.2	2.1	0.4		16.0	23.9	15.5	8.3	4.0	1.9	0.8
가구주 부모인 비율	49.4	37.8	51.6	62.4	67.8	67.1	62.8	31.1	18.6	29.3	41.0	53.8	67.0	72.2

3) 성별 가구주의 형성비율과 특성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지난 20년간 남성들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사별, 이혼 및 미혼의 비율이 높고 고령층에 몰려 있음

- 남녀 모두 가구주 비율이 1980년은 도시, 2000년에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는 사별이나 이혼에서 가장 높으며,

- 미혼 여성 가구주 비율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한 것은 미혼여성들의 1인가구 형성 경향과도 일치

○ 연령별 여성 가구주 비율은

- 1980년에는 55~64세에 정점(17.3%)을 이룬 후 65세 이상(9.2%)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져, 노년기에 기혼자녀 가구에 흡수되었으나
- 2000년에는 65세 이상층(31.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층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고 자신의 가구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

<표 5-6> 남성과 여성의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 가구주 비율(1980, 2000년)
(단위: %)

	1980		2000	
	남성 중 가구주 비율	여성 중 가구주 비율	남성 중 가구주 비율	여성 중 가구주 비율
전체	59.2	8.3	69.9	15.0
지역				
도시	58.8	9.3	69.2	14.4
농촌	59.7	6.9	72.7	17.2
결혼상태				
미혼	6.0	4.1	17.5	13.5
결혼	91.0	3.9	94.4	4.3
사별	50.2	33.3	66.7	56.7
이혼	49.4	45.0	79.6	82.4
연령				
15~24	6.2	3.2	6.9	6.8
25~34	66.5	4.5	60.7	9.2
35~44	93.0	10.1	92.3	12.2
45~54	95.7	17.1	96.5	18.6
55~64	93.3	17.3	95.0	23.6
65 +	71.3	9.2	82.9	31.6

6. 노동력

민경희(충북대학교)⁹⁾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1966년 27.7%에서 2000년 41.3%로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 45.0%에서 2000년 61.1%로 증가

- 이런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기인
 -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 27.7%에서 2000년 41.3%로 증가
- 지난 20년 동안 남녀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
- 20세 이상에서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해온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표 6-1>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남자											
2000a	6.5	0.5	2.3	14.1	78.6	38.8	86.0	93.9	89.3	69.0	39.0
2000b	11.1	3.1	6.1	20.5	82.0	45.8	89.2	95.9	92.3	73.4	42.9
1995	10.6	0.8	3.8	25.0	86.1	58.4	94.6	98.2	95.0	78.6	40.5
1990	12.4	1.6	5.1	25.3	84.1	53.3	93.8	97.6	93.4	74.8	37.0
1985	12.7	1.7	8.7	31.7	85.5	61.5	94.3	97.9	94.3	75.5	40.0
1980	21.4	5.5	18.2	42.4	85.8	71.0	94.1	96.4	92.1	75.9	40.5
여자											
2000a	7.8	0.2	1.8	17.0	42.5	48.9	44.2	49.6	47.7	37.5	18.9
2000b	12.9	2.8	5.7	24.3	49.5	57.0	51.9	57.1	54.6	43.6	23.5
1995	11.9	0.5	2.7	28.7	42.0	61.3	39.2	44.4	46.7	40.2	16.8
1990	16.1	1.4	5.1	34.0	36.9	57.2	31.2	39.2	44.2	34.8	11.5
1985	13.9	2.1	9.0	35.0	35.7	49.4	28.1	38.8	46.3	35.2	10.7
1980	25.1	7.4	22.4	47.8	40.1	51.2	31.9	46.0	50.2	38.3	12.4

주 :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9) bangziga@yahoo.co.kr, 043-261-2182

<표 6-2>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1980-2000

(단위 : %)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남자												
2000a	100.0	1.0	0.0	0.1	0.8	99.0	4.1	28.2	32.2	19.8	10.4	4.3
2000b	100.0	1.6	0.1	0.3	1.2	98.4	4.6	27.9	31.4	19.5	10.6	4.5
1995	100.0	1.6	0.0	0.2	1.3	98.4	7.1	31.4	29.1	17.3	10.2	3.2
1990	100.0	2.4	0.1	0.4	1.9	97.6	7.6	34.8	26.0	17.9	8.5	2.7
1985	100.0	3.4	0.2	0.8	2.4	96.6	9.9	34.0	24.2	18.0	7.8	2.7
1980	100.0	6.4	0.6	1.8	4.0	93.6	12.1	30.2	24.7	16.0	8.0	2.6
여자												
2000a	100.0	1.9	0.0	0.2	1.7	98.1	11.5	24.8	28.2	17.5	10.5	5.6
2000b	100.0	2.7	0.1	0.5	2.1	97.3	11.5	24.8	27.6	17.0	10.4	6.0
1995	100.0	3.2	0.0	0.3	2.9	96.8	18.1	24.4	23.5	15.6	11.0	4.2
1990	100.0	6.1	0.1	0.8	5.2	93.9	20.5	23.6	20.1	17.0	9.8	2.9
1985	100.0	7.1	0.4	1.5	5.2	92.9	20.7	21.4	19.5	19.2	9.6	2.5
1980	100.0	12.0	1.3	3.5	7.2	88.0	20.3	18.4	21.0	17.4	8.6	2.4

주 :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6-3> 연령별 노동력의 성별구성, 1980-2000 (여성의 비율)

(단위 : %)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2000a	37.4	53.4	27.5	41.1	55.3	37.2	62.7	34.5	34.4	34.6	37.6	44.2
2000b	40.1	52.8	46.1	46.4	54.9	39.9	62.4	37.4	37.1	36.9	39.7	47.2
1995	35.1	52.4	39.0	40.7	54.2	34.7	57.8	29.5	30.4	32.8	3.07	41.4
1990	33.2	55.4	45.6	48.2	57.0	32.4	57.3	25.3	27.8	32.1	36.5	34.4
1985	32.4	50.0	53.0	47.8	50.4	31.5	50.0	23.1	27.8	33.0	36.9	30.8
1980	36.0	51.3	55.1	52.2	50.4	34.6	48.5	25.5	32.3	37.9	37.8	34.2

주 :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

<표 6-4>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남자	무학	초등	중학	인문고	실업고	초대,전문대	대학이상
2000a	49.4	68.3	67.6	72.2	72.2	71.5	73.6
2000b	53.9	72.7	71.4	75.5	75.5	75.5	76.5
1995	54.7	78.7	78.0	78.9	78.9	80.0	77.0
1990	55.5	81.2	78.6	71.5	71.5	76.1	73.5
1985	63.2	87.3	68.2	69.2	69.2	70.6	67.0
1980	69.9	88.5	66.7	62.1	67.1	66.9	72.4
여자							
2000a	28.7	43.3	40.7	37.4	37.4	45.0	41.7
2000b	33.8	49.4	47.6	44.8	44.8	52.3	48.1
1995	31.2	46.3	37.8	36.8	36.8	47.2	39.8
1990	29.8	43.4	31.4	31.9	31.9	41.6	32.7
1985	34.1	43.9	24.7	28.2	28.2	38.3	24.7
1980	41.8	47.5	28.6	26.4	36.3	43.0	25.6

주 :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 결혼상태별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도 최근에 유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6-5> 성별,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남 자					여 자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00a	71.2	85.2	39	75.6	43.3	39.3	40.9	27.5	60.3	39.8
2000b	74.7	87.5	44.7	83.2	48.9	46.1	47.7	33.6	72.3	46.7
1995	77.6	91	46.7	88.1	51.3	38.9	36.8	30.3	70.2	47.2
1990	73.8	90.4	42.7	86.2	44.7	34.2	31	28.4	70.7	42.9
1985	74.1	91.4	43.8	85.1	45.6	33.1	31.1	28.5	60.9	39.2

주 :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 지역별로는 도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농촌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항상 높게 나타남

<표 6-6> 성, 연령, 도시-농촌 구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17	18-19	전체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도 시											
남 자											
2000a	70.2	6.5	2.3	13.8	78.1	37.9	85.8	93.9	88.9	65.5	30.5
2000b	73.9	11.0	6.0	20.2	81.6	45.1	89.0	96.0	92.1	70.4	34.8
1995	77.0	10.0	3.6	23.3	85.8	56.4	94.4	98.3	94.8	75.2	31.8
1990	73.1	11.3	4.6	22.7	83.7	50.8	93.7	97.7	92.5	65.2	20.5
1985	70.0	11.6	8.0	27.2	84.1	56.9	93.7	97.8	92.6	61.2	21.6
1980	69.5	19.8	15.9	36.7	83.2	63.8	93.3	95.6	88.0	58.7	22.9
여 자											
2000a	37.2	7.9	1.8	16.9	40.4	48.6	44.0	48.0	44.3	29.0	12.2
2000b	44.3	13.0	5.8	24.4	47.8	56.8	51.8	55.8	51.6	36.0	17.0
1995	36.5	12.0	2.7	28.3	39.4	61.1	38.5	41.8	41.4	30.6	10.6
1990	29.7	16.1	4.5	33.4	31.7	57.2	28.6	33.2	32.0	17.4	3.8
1985	24.9	15.2	9.3	35.4	26.9	49.4	22.1	27.1	26.4	13.8	3.0
1980	28.1	27.6	22.6	47.8	28.2	49.3	22.5	28.6	26.5	14.3	2.7
농 촌											
남 자											
2000a	76.0	7.4	2.9	17.3	82.3	47.8	89.2	94.0	92.2	85.1	62.5
2000b	78.5	12.1	7.2	23.6	84.7	53.1	91.9	95.6	93.9	87.1	65.2
1995	81.0	15.0	5.4	38.9	88.1	72.8	96.0	97.6	95.8	89.6	60.7
1990	75.7	15.7	6.8	33.7	85.4	61.1	94.3	97.2	95.4	88.8	53.7
1985	74.3	14.9	10.1	41.6	88.1	70.9	96.0	98.2	96.8	89.3	52.9
1980	75.3	23.8	21.7	52.5	89.2	82.4	95.9	97.7	96.1	88.1	49.8
여 자											
2000a	53.4	6.3	1.3	17.4	57.0	52.5	47.1	65.9	72.4	70.0	38.6
2000b	57.8	11.0	5.4	24.1	61.4	59.4	53.1	70.6	76.2	73.2	42.6
1995	52.5	10.9	2.6	31.8	56.8	63.3	45.4	64.5	73.5	68.7	32.9
1990	47.0	15.9	6.9	36.1	51.4	57.0	42.4	62.1	69.2	59.4	21.0
1985	45.8	11.3	8.4	33.7	52.4	49.3	44.5	65.2	71.8	57.5	17.5
1980	50.4	21.5	21.9	47.7	56.5	55.7	51.2	69.5	72.2	57.2	19.0

주 : 1) *16세 미만의 노동력도 포함함. 그러나 표에는 16세 미만 노동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2)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3)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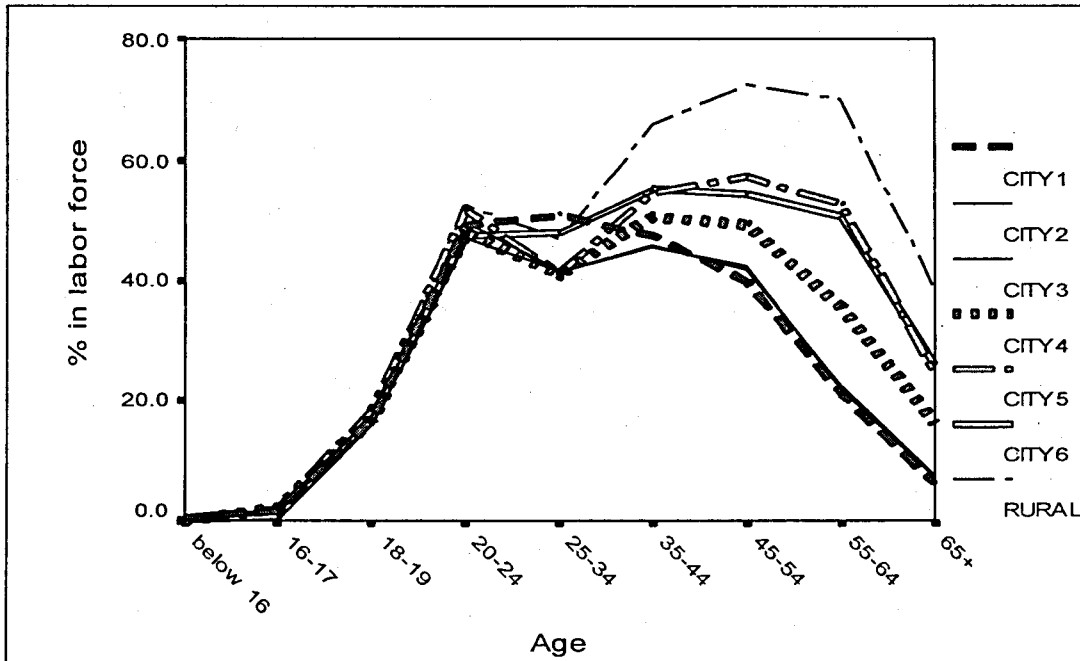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 도시규모별로 2000년 자료를 보면,

- 남성 경제활동의 정점을 이루는 35-44세에서는 도시별로 별 차이가 없지만
 - 18-1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대도시나 극소도시보다 중간규모의 도시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 45세 이후의 장년층은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서 더 빨리 은퇴하고 있음

- 여성들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은 전형적인 M-곡선에서 벗어나서 25-34세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 장년층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이 가장 낮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영위

<그림 6-1> 도시규모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0



주 : city1: 거대도시 (인구 5,000,000명 이상)/ city2: 대도시 (인구 1,000,000 - 4,999,999명)
 city3: 중도시 (인구 500,000-999,999명)/ city4: 중소도시 (인구 200,000 - 499,999명)
 city5: 소도시 (인구 100,000 - 199,999명)/ city6: 극소도시 (인구 100,000명 미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00년 2% 표본 원시자료.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했음.

○ 거주지 이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여성들에게는 도시에서는 별 영향이 없으나 농촌에서는 부정적

- 일반적으로 젊은층에서는 긍정적이고 장년층에서는 부정적

<표 6-7> 거주지 이동 횟수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거주지 이동 횟수	연 령								
	전체	16-17	18-19	20-24	25-34	35-44	45-54	55-65	65+
남자	도 시								
0	60.4	1.7	11.0	34.7	80.5	91.4	87.8	73.3	49.1
1	71.2	2.4	14.2	37.9	85.3	94.1	89.2	63.3	23.3
2	79.9	3.8	18.9	43.1	90.6	95.2	89.5	62.6	17.8
3	81.1	10.1	22.7	49.8	90.6	93.6	89.2	65.7	14.2
여자	농 촌								
0	38.8	1.4	15.7	47.5	51.9	52.6	51.8	47.7	24.2
1	38.8	1.9	17.1	49.2	45.2	47.9	43.2	25.3	9.1
2	36.1	2.8	21.0	49.3	37.7	45.7	40.7	18.5	3.5
3	38.5	8.0	21.6	49.3	39.4	44.9	42.9	19.9	1.9
남자	농 촌								
0	75.7	1.4	16.3	48.0	87.2	93.5	93.6	88.4	67.8
1	73.7	8.2	19.3	45.1	90.1	94.5	89.8	77.9	47.8
2	80.8	6.8	18.8	49.3	92.9	95.0	89.2	69.2	30.8
3	83.5	-	25.0*	53.4	90.2	94.0	83.7	74.3	40.0*
여자	농 촌								
0	56.1	0.9	15.2	57.7	55.1	72.0	78.0	76.3	42.2
1	53.5	2.3	20.9	46.2	48.8	65.2	69.5	63.4	34.0
2	40.3	2.1	22.2	45.2	37.0	54.0	52.2	36.6	11.4
3	36.4	20.0*	46.2*	40.9	33.7	41.5	47.2	35.0*	4.8*

주 : *표본규모 < 30.

출처: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

○ 평균노동력 여명을 보면, 1999년 15세 남성은 약 40년, 여성은 약 28년의 노동력여명을 기대

○ 2000년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40.8%로 추정

여성 경제활동은 가족내에서의 위치(아내, 며느리, 딸)에 따라 차이

-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 구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바,
- 도시의 1세대 가구들에서 여성가구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
 - 가구주의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들과 다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장년층 아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
 - 2000년 농촌에서는 배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고, 가구주, '기타' 여성의 순서로 낮아짐
 - 가족규모 때문에 같은 연령층이라도 가족에서의 위치(아내, 며느리, 딸)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달라짐

<표 6-8> 가구주와의 관계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가구주와의 관계	연 령							
	전체	<20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도 시								
(1)	51.9	31.6	64.1	74.2	69.6	59.8	38.6	17.5
(2)	37.3	32.7	30.5	32.0	44.5	40.8	28.4	21.7
(3)	32.6	6.1	46.7	67.5	54.6	43.4	25.0	0.0*
(4)	43.4	17.9*	27.8	41.7	53.5	50.4	29.4	18.8
(5)	21.2	6.0	47.3	58.0	50.5	-	-	16.7*
(6)	56.5	24.1	60.0	69.9	54.6	34.6	14.9	5.0
(7)	44.8	14.2	53.0	75.5	57.1*	50.0*	0.0*	0.0*
(8)	46.8	17.8	59.7	73.7	55.0	43.8	24.3	4.0
(9)	57.4	44.1	61.3	77.6	58.0	61.7	35.3	17.0
농 촌								
(1)	56.5	23.6	61.0	78.6	76.3	77.2	71.7	39.5
(2)	62.7	36.4*	28.0	39.9	64.9	72.4	73.3	60.0
(3)	30.2	5.0	57.7	68.1	50.4	38.9*	44.4*	66.7*
(4)	52.3	11.8*	25.3	49.8	65.2	76.9	68.0*	60.0*
(5)	14.4	5.8	73.3	50.0*	75.0*	-	-	-
(6)	47.5	20.0*	57.1	56.7	51.4	22.2*	25.0*	30.0*
(7)	36.2	8.0*	83.3*	71.4*	-	-	-	-
(8)	33.6	16.0*	65.0*	45.5*	72.7*	25.0*	42.9*	11.8
(9)	60.1	34.5	71.8	86.4	88.5	67.7	54.9	12.5

Key : 가구주와의 관계 부호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손자녀·그 배우자, (6) 형제자매·그 배우자, (7)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8) 기타 친인척, (9) 기타 동거인
출처: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

- 자녀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인가 배우자인가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학령기 동거자녀(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남
 - 취업여성들은 전학령기 아동 보육을 조부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초등학생 아동의 보육방법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학원의 중요성이 드러남

- 노동력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보다 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줌
 -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연령, 교육정도, 결혼 상태, 거주지역, 거주지 이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 여성들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성역할(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이외에 사회참여라는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사회 참여의 중심
 - 여성들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맞물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 그러나 경제활동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 개인의 삶의 조건이나 생애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참여 요인이 증가
 -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며, 인력 교체, 부분고용, 임시고용 등이 증가

- 또한 정보화 사회는 수요자의 취향에 민감한 고급 여성전문인력의 수요를 증가
 - 이와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요인이 됨
 - 다른 한편 남녀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여성노동공급을 증가
- 앞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경제활동행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력 측정 방법이 필요
- 특히 여성들의 노동력 공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들은 비시장적 노동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주기를 요구

7. 노인인구의 변화

박경숙(동아대학교)¹⁰⁾

1) 노인가구 특성의 변화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주 비율이 1990년 38.4%에서 2000년에는 27.3%로 감소

○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주의 비율은 1990년 44.5%에서 2000년에는 51.8%로 증가

- 남성 가구주는 80.2%에서 84.7%로 4.5%p 증가

- 여성 가구주는 23.1%에서 31.5%로 8.4%p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의 부모인 경우는 1990년 38.4%에서 2000년에는 27.3%로 크게 감소

- 반면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는 같은 기간중 2.0%에서 2.7%로 증가

<표 7-1>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

	전체			남			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가구주	44.5	47.4	51.8	80.2	81.6	84.7	23.1	27.4	31.5
가구주의배우자	11.5	13.3	16.2	0.3	0.5	0.7	18.3	20.8	25.8
가구주의부모	38.4	33.4	27.3	17.2	15.4	12.4	51.2	44.0	36.4
배우자의부모	2.0	2.8	2.7	0.7	1.0	1.3	2.8	3.9	3.6
기타	3.5	3.0	1.9	1.7	1.4	0.8	4.6	3.9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10) pks0505@mail.donga.ac.kr, 051-240-2789

유배우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사별후에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

○ 노인가구가 규모는 작아지고 세대 구성은 단순해지고 있음

-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
- 3세대이상의 확대가구에 사는 노인은 크게 줄고, 노부부 중심의 1세대나 1인 가구에 속하는 노인은 크게 증가

○ 유배우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사별후에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

- 남성 노인은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부분 사별한 여성 노인은 1인가구에 속하는 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

<표 7-2>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구성

	전체			남			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인가구	8.9	13.3	16.2	3.4	4.9	6.2	12.2	18.2	22.4
비혈연가구	0.7	0.8	0.4	0.4	0.8	0.3	0.8	0.8	0.5
1세대가구	16.9	23.3	28.7	29.4	39.9	45.8	9.4	13.5	18.1
2세대가구	23.4	23.0	23.9	29.4	26.0	25.9	19.7	21.2	22.6
3세대가구	47.6	38.4	29.9	35.9	27.6	21.2	54.7	44.7	35.3
4세대가구	2.0	1.2	0.9	1.1	0.7	0.5	2.5	1.6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노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있는 일을 할수록, 농촌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더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은 세대이거나 또는 노인이 나이가 덜 먹었을 때
- 사별보다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 학력이 낮을수록(현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거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음)
- 건강에 장애가 없을수록
-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농촌과 비교할 때)

○ 또한 5년전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일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노인 이동의 주원인이 자녀와의 결합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지난 20년간 유배우율의 증가는 독거율 증가효과의 약 10%를,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주지 변화효과는 독거율 증가의 7.9%를 상쇄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남

3) 노인과 경제생활

65세이상 노인 5명중 1명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 사회보호 정책의 주요대상에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로서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가 1990년에는 14.1%에서 1999년에는 27.4%로 증가
- 2000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에 달함

○ 현재 65세이상 노인층은 대부분 청장년기에 소득축척 기회가 적은 농어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노인이 된 지금 노령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60세 이상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1995년 0.9% → 2000년 9.3%

고연령층(55세이상)은 전문기술직 및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증가

- 청·중년층과 고연령층간의 취업자 비율 차이를 보면, 전문·기술직 및 사무직에서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 노무직에서는 노인층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연령집단별 취업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u>업종</u>	<u>1980-2000년중 연령집단간 동향</u>
· 전문기술직	젊은 연령층 집중현상이 강화
· 행정관리직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차이가 최근 완화
· 사무직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과소반영
· 판매서비스직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청·중년층으로 대체
· 농림어업	고연령층이 과다한 가운데 연령집단간 차이가 심화
· 생산단순노무직	고연령층이 과소한 가운데 점차 고연령층의 비중이 커짐

※ 고연령층은 55세 이상을 의미

4) 고령화의 지역화

전남, 충남, 경북은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된 반면 울산은 전국적으로 노인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남

- 과거에 비해 도시에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노인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침
-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음
-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은 전국 평균을 상회
- 특히 전남, 충남, 경북은 상당히 고령화

8. 지역 간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최진호(아주대학교)11)

1) 지역간 인구분포

가. 시·도 인구분포 추이

서울, 부산 인구는 절대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도 지역은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

○ 199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 절대수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관성있게 증가해 왔으나, 1990-95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의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부산은 인구 절대수는 증가하나 그 비중은 감소

- 1995-2000년에는 부산의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대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

○ 거꾸로 도지역은 경남을 제외하고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일관성있게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였으나 1990-95년에는 충북의 절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2000년에는 전남·북을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인구 절대수가 증가

<표 8-1>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천명, %)

시·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전국	24,989(100.0)	31,434(100.0)	37,436(100.0)	43,411(100.)	44,609(100.0)	46,136(100.0)
서울	2,445(9.8)	5,525(17.6)	8,364(22.3)	10,613(24.4)	10,231(22.9)	9,895(21.4)
부산	1,164(4.7)	1,876(6.0)	3,160(8.4)	3,798(8.7)	3,814(8.5)	3,663(7.9)
대구	677(2.7)	1,081(3.4)	1,605(4.3)	2,229(5.1)	2,449(5.5)	2,481(5.4)
인천	401(1.6)	643(2.0)	1,084(2.9)	1,818(4.2)	2,308(5.2)	2,475(5.4)
광주	314(1.3)	484(1.6)	728(1.9)	1,139(2.6)	1,258(2.8)	1,353(2.9)
대전	229(0.9)	407(1.3)	652(1.7)	1,050(2.4)	1,272(2.9)	1,368(3.0)
경기	2,348(9.4)	2,710(8.7)	3,850(10.3)	6,156(14.2)	7,650(17.1)	8,984(19.5)
강원	1,637(6.5)	1,865(5.9)	1,791(4.8)	1,580(3.6)	1,466(3.3)	1,487(3.2)
충북	1,370(5.5)	1,480(4.7)	1,424(3.8)	1,390(3.2)	1,397(3.1)	1,467(3.2)
충남	2,229(9.2)	2,451(7.8)	2,304(6.2)	2,014(4.6)	1,767(4.0)	1,845(4.0)
전북	2,395(9.6)	2,432(7.7)	2,228(6.1)	2,070(4.8)	1,902(4.3)	1,891(4.1)
전남	3,239(13.0)	3,511(11.2)	3,052(8.2)	2,507(6.8)	2,067(4.6)	1,996(4.3)
경북	3,171(12.7)	3,475(11.1)	3,350(9.0)	2,861(6.6)	2,676(6.0)	2,725(5.9)
경남	3,018(12.1)	3,119(9.9)	3,322(8.9)	3,672(8.5)	3,846(8.6)	3,993(8.7)
제주	282(1.1)	365(1.2)	463(1.2)	515(1.2)	505(1.1)	513(1.1)

11) jhchoi@madang.ajou.ac.kr, 031-219-2114(2778)

나. 수도권 인구집중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 증가분의 비율을 보면 1995년까지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되어 90-95년에는 133.7%에 이르렀으나 95-00년에는 76.3%로 대폭 감소

- 1990이후 서울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구의 급증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효과가 미약
-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1995년을 고비로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
 -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증가분의 비율을 보면 1995년까지는 매년 그 비율이 증대되며 1990-95년에는 133.7%에 이르렀으나 1995-2000년에는 76.3%로 감소

<표 8-2> 수도권의 인구집중

(단위: 천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95
경기도+인천	2,749	3,354	4,934	7,974	9,958	11,459
수도권 ¹⁾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주: 1) 수도권 = 서울+경기도+인천

<표 8-3> 수도권 인구증가분

(단위: 천명, %)

	1960-70	1970-80	1980-90	1990-2000	1990-95	1995-2000
서울	3,080	2,839	2,249	-718	-382	-336
경기도+인천	605	1,580	3,040	3,485	1,984	1,501
수도권	3,685	4,419	5,289	2,767	1,602	1,165
전국	6,445	6,002	5,975	2,725	1,198	1,527
서울/전국	47.8	47.3	37.6	-26.3	-31.9	-22.0
경기도/전국	9.4	26.3	50.9	127.9	165.6	98.3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01.5	133.7	76.3

2) 국내 인구 이동

가) 인구이동 추이

대도시는 과거의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바뀐 반면, 도지역은 전출초과에서 전입초과로 바뀌고 있어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점차 시정

○ 전국의 시·군·구를 이동단위로 하고 센서스와 그전 5년간의 이동을 보면 이동율은 1990년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85-90년에는 5세이상 전체 국민의 24.6%가 이동을 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다소 감소해 23.1%를 기록

- 이동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였을 때 1975-80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음

<표 8-4>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단위: 천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기타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70년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80년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90년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00년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 서울은 순이동량이 65-7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다 85-90년부터는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은 서울보다 5년 뒤진 75-80년을 정점으로 순이동이 감소하다 1995-2000년에 전출초과로 돌아섰음
- 대구도 1995-2000년에 전출초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광역시는 아직은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순이동량은 85-90년보다 많이 감소
- 한편 도지역에 있어서는 최근 1995-2000년에 충북, 충남과 경남은 전입초과로 바뀌었고 다른 도에 있어서도 전출초과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
- 이상의 변화추세에 예외적으로 경기도만 지속적으로 순이동의 양이 증대

<표 8-5> 시·도간 인구이동

(단위:천명)

	전 입				전 출				순 이 동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서울	1,191	1,256	1,333	971	248	753	1,377	1,656	943	503	-44	-685
부산	309	539	373	216	127	221	348	400	182	318	25	-184
대구	-	-	292	201	-	-	213	248	-	-	79	-47
인천	-	-	413	339	-	-	174	279	-	-	239	60
광주	-	-	186	164	-	-	122	144	-	-	64	20
대전	-	-	199	210	-	-	96	152	-	-	103	58
울산	-	-	-	110	-	-	-	111				-1
경기	346	905	1,457	1,680	320	437	727	908	26	468	730	772
강원	103	105	123	164	184	275	299	178	-81	-170	-176	-14
충북	56	73	122	169	164	208	190	143	-108	-135	-68	26
충남	99	166	137	262	308	332	326	199	-209	-166	-189	63
전북	55	65	81	133	205	274	267	169	-150	-209	-186	-36
전남	58	89	140	171	277	429	437	226	-219	-340	-297	-55
경북	146	264	245	275	303	400	453	281	-157	-136	-208	-6
경남	98	296	360	283	307	385	372	262	-209	-89	-12	21
제주	14	22	29	36	12	25	33	31	2	-3	-4	5

나) 인구이동 유형

2000년 현재 1(5)년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이동유형을 보면 40%는 비이동자, 53%는 정착이동자로 분류되며, 적어도 2번이상 계속 이동한 사람도 5.7%에 달함

- 시·군을 이동단위로 하여 센서스의 출생지, 5년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그리고 현거주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동유형을 구분해 보면
 - 전체 국민의 40%는 비이동자, 53%는 정착이동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적어도 2번이상 계속 이동한 사람도 5.7%에 이르고 있음
 - 1990년과 비교해 보면 앞의 이동율에서 보았듯이 전체 국민들의 이동성향은 줄어들고 있음. 즉 비이동자비율은 증가한 반면, 1차이동자나 반복이동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표 8-6> 우리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이동상 지위 (단위: %)

	1990	2000
비이동자	37.2	40.1
1차이동자	1.6	1.3
정착이동자	53.6	52.9
2차이동자	5.6	3.4
귀환이동자	2.1	2.3
계	100.0	100.0
(사례수)	(773,669)	(821,386)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2% 표본자료.

○ 이동유형별로 특성을 비교해 보면

- 연령은 1차이동자가 주로 20-24, 25-29세로 가장 젊고, 2차 이동자, 정착이동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지며
- 학력수준은 2차이동자에서 가장 높고 1차, 귀환이동자 순으로 높아 학력과 이동성향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이 2차 이동자에 있어 제일 높아 고급 인력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8-7>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비이동자	1차이동자	정착이동자	2차이동자	귀환이동자	총계
성	남	51.6	50.8	46.4	50.4	51.7	48.8
	여	48.4	49.2	53.6	49.6	48.3	51.2
연령	14세 이하	25.4	20.5	8.5	9.7	23.7	15.8
	15-19세	12.7	14.1	5.1	4.1	6.1	8.2
	20-24세	8.9	17.3	5.2	10.3	8.2	7.1
	25-29세	9.0	20.3	8.7	18.5	13.5	9.4
	30-34세	6.6	10.3	11.1	19.0	15.8	9.7
	35-39세	6.0	5.6	12.8	14.0	13.1	10.0
	40-44세	6.3	3.5	12.5	8.3	7.8	9.6
	45-49세	4.8	2.0	9.2	4.5	3.7	7.1
	50-54세	4.1	1.3	7.1	3.0	2.2	5.6
	55-59세	3.8	1.2	5.9	2.4	1.9	4.8
	60세 이상	12.4	3.9	13.9	6.4	4.0	12.6
교육정도	불취학	11.2	8.1	6.5	4.6	6.4	8.4
	초등학교	25.5	14.8	17.1	11.0	19.3	20.3
	중학교	13.6	6.4	14.9	8.1	9.8	13.9
	고등학교	29.9	31.0	38.1	38.3	33.6	34.6
	전문대학교	8.4	16.2	8.5	12.7	10.7	8.7
	대학교	11.2	23.1	14.5	24.5	19.4	13.7
	대학원이상	0.2	0.3	0.5	0.8	0.8	0.4
혼인상태	미혼	40.5	51.1	18.7	25.9	28.8	27.3
	유배우	50.2	43.6	71.1	66.9	64.3	63.0
	사별	7.6	3.9	8.1	4.5	3.5	7.7
	이혼	1.7	1.4	2.2	2.7	3.3	2.0
경제활동 상태	유업자	63.0	61.0	56.9	60.7	66.1	59.7
	무업구직자	5.6	5.8	6.9	6.6	6.4	6.4
	가사 및 학생	31.5	33.3	36.2	32.6	27.5	33.9
직업	전문·기술	8.0	15.5	14.4	20.9	14.0	12.0
	행정·관리	42.3	36.2	20.0	22.8	39.5	30.3
	사무	8.2	13.5	11.9	15.2	10.8	10.5
	판매	6.6	6.3	11.8	8.9	8.4	9.3
	서비스	4.6	7.7	9.0	9.1	7.5	7.1
	농·임·어업	16.8	1.5	5.2	1.3	5.3	9.9
	생산·운수· 장비·노무	13.5	19.2	27.7	21.8	14.5	21.0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2% 표본자료.

다) 인구이동 이유

개인적인 이동 사유는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구직, 직장, 사업 등 취업관련 이유는 줄어들고 주택이나 가족관련 이유가 과거에 비해 증가

○ 과거에는 이동이 주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인되었으나 요즘에는 대도시 중심의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직장을 옮기지 않고 주거만 바꾸는 이동이 활발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근교의 대규모 신도시나 주택단지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표 8-8> 인구이동 이유

(단위:%)

1966			1997		
이동사유	전체이동자	가구주	이동이유	전체이동자	가구주
구직/생활고	13.1	30.0	직업	19.3	36.4
직장/사업	17.9	41.6	교육	7.1	10.4
취학/교육	9.2	4.9	주택	13.2	22.9
주택	9.2	15.8	가족	56.2	23.5
가족	47.9	5.5	주거/근린환경	2.7	4.5
건강	0.4	0.4	자연환경/기타	1.5	2.3
기타	2.3	1.7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최인현, 박재수, 1966 특별인구조사 결과 및 개요, 1969

통계청, 1997년 인구이동 특별조사 보고서, 1998

3) 수도권 인구이동

가)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순이동의 양이 1995-2000년 중 서울보다 경기도가 많음

○ 수도권 전입자의 목적지가 60년대에는 대부분이 서울이었으나 점차 서울의 비율이 줄어들어 이제는 오히려 경기도를 목적지로 한 전입자가 서울보다 많음

- 따라서 순이동의 양도 1995-2000년을 기점으로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간 총이동의 74%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36%는 수도권내에서의 이동이며 21%는 수도권으로의 전입, 16%는 수도권외로의 전출로 나타남

<표 8-9> 수도권의 인구이동 (단위: 천명, %)

	1965-1970년	1975-1980년	1985-1990년	1995-2000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56	1,962
경기→서울	251	311	440	432
→인천	-	-	102	122
인천→서울	-	-	64	65
→경기	-	-	65	119
서울→경기	122	436	825	1,098
→인천	-	-	160	126
수도권외 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100.0)
서울←	940 (80.8)	945 (66.8)	829 (53.6)	535 (47.3)
인천←	-	-	151 (9.8)	96 (8.5)
경기←	224 (19.2)	469 (33.2)	567 (36.6)	499 (44.2)
수도권외 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100.0)
서울→	126 (64.6)	317 (71.6)	392 (63.0)	432 (49.0)
인천→	-	-	45 (7.2)	95 (10.8)
경기→	69 (35.4)	126 (28.4)	185 (29.8)	354 (40.2)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서울	814 (84.0)	628 (64.7)	437 (47.2)	103 (41.4)
인천	-	-	106 (11.5)	1 (0.04)
경기	155 (16.0)	343 (35.3)	382 (41.3)	145 (58.2)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나)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1990년까지는 전남·북, 충남, 강원 등에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으나 최근 5년간에는 전체적으로 광역시의 전입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도지역의 전입 비중은 감소

- 수도권 전입자의 시·도별 전거주지비율을 보면 1990년까지는 전남·북, 충남, 강원 등의 비율이 높아 이들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됨
 - 그러나 최근 5년간에는 강원과 부산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의 전입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도지역에서의 전입은 줄어들고 있음
 - 또 각지역에서의 수도권 유출율을 비교해 보면 강원이 가장 높고 충남, 전북 등의 순으로서 상대적으로 영남지역의 수도권전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각지역의 수도권 전출율은 199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이후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최근 완화되고 있음

<표 8-10>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별 비율 (단위: %)

	1965-70년	1975-80년	1985-90년	95-2000년
부 산	5.8	5.5	7.6	9.8
대 구	-	-	4.3	6.3
광 주	-	-	4.1	5.6
대 전	-	-	3.2	6.2
울 산	-	-	-	2.4
강 원	10.2	12.3	12.7	10.4
충 북	9.3	8.6	7.5	6.5
충 남	22.0	18.2	13.5	9.5
전 북	13.2	13.6	12.7	9.5
전 남	18.0	20.3	14.8	8.9
경 북	13.4	12.7	8.7	7.8
경 남	6.8	6.0	7.0	6.4
제 주	0.5	0.8	1.1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계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549	1,134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다)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수도권 이동에서 전입은 여자, 전출은 남자가 많으며, 전입과 전출 모두 거주자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이동자의 학력 수준은 전입자가 가장 높고 다음은 전출자, 거주자 순이나 전출입자와 거주자간의 학력차이가 큼.

- 고학력자가 이동이 많기도 하지만 고등 교육의 이수가 이동의 목적이기 때문

○ 직업에서는 전문·기술직 등 고급인력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입

<표 8-11>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	47.5	50.9	49.4
	여	52.5	49.1	50.6
연령	14세 이하	13.7	20.0	22.4
	15-19세	6.4	4.5	7.6
	20-24세	15.7	7.2	6.4
	25-29세	22.1	14.4	9.1
	30-34세	14.3	17.6	9.6
	35-39세	9.8	14.4	9.9
	40-44세	6.5	8.1	9.4
	45-49세	3.4	4.0	6.7
	50-54세	1.9	2.4	5.2
	55-59세	1.3	2.0	4.3
	60세 이상	4.9	5.5	9.4
교육정도	불취학	5.4	7.0	13.3
	초등학교	12.2	17.2	16.6
	중학교	7.1	9.0	12.4
	고등학교	31.0	34.5	34.6
	전문대학교	13.8	9.6	8.4
	대학교	29.5	21.9	14.3
	대학원이상	1.2	0.9	0.4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유배우	52.7	70.0	63.0
	사별	4.2	4.1	6.2
	이혼	2.0	2.6	2.2
경제활동상태	유업자	61.7	62.5	62.3
	무업구직자	6.7	5.6	6.2
	가사 및 학생	31.6	32.0	31.6
직업	전문·기술	25.4	12.3	13.1
	행정·관리	26.6	38.2	40.0
	사무	15.4	10.3	10.5
	판매	6.8	8.7	8.7
	서비스	7.5	8.6	6.2
	농·임·어업	0.3	5.5	2.0
	생산·운수·장비·노무	18.1	16.5	19.6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9. 한국의 도시화

장세훈(국회)¹²⁾

1) 한국도시화의 흐름

서구에서 200년 걸린 도시화가 우리나라에서는 30-40년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짐

- 1910~1940년은 인구이동에서 해외이동은 3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국내인구이동은 약 87만명에 불과하여 이농인구의 대다수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 유예현상이 나타남
- 1945~1960년은 해외동포(약 180만명)가 국내로 유입되고 65만여명의 월남민이 남한으로 이주하여 주로 서울 및 도시지역으로 정착
 - 전쟁이후의 와해된 도시의 경제기반으로 서울지역의 취업률이 정상 취업률(45%)을 크게 밑도는 23%에 불과해 과잉도시화
- 1960~1990년은 산업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율이 급속히 상승
 - 서구사회가 지난 2세기간에 밟아온 도시화경로를 불과 30~40년만에 답습하는 압축적 도시화
- 1990년 후반부터는 도시화 증가율이 미미한 성숙단계로 이행

<표 9-1> 한국도시화의 흐름

년도	특성	동인(動因)	도시화율
1915 이전	도시화현상 없음	-	2.8%
1915~1944	유예된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농촌수탈 ○ 이농인구 대다수 해외이주 	13.2%
1945~1960	과잉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 유입 ○ 월남민의 서울정착 	28.0%
1961~1990	압축적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달에 따른 이농현상 - 서구의 도시화 200년 - 한국의 도시화(30-40년) 	74.4%
1990~현재	성숙된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부산, 대구의 인구 - 1990년: 16,640천명 - 2000년: 16,039천명 	79.7%

12) cfa25@nanet.go.kr, 031-421-6047

2)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

1960년에는 도농간의 연령구조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대규모 이농현상으로 2000년에는 농촌지역의 인구 노령화가 두드러짐

○ 1960년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으나 2000년에는 도시지역에서는 50세 미만에서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50세 이상의 연령분포가 높게 나타남

- 2000년 도시지역의 연령 구조는 50세 미만이 82.4%, 50세 이상이 17.6%로 나타난 반면, 농촌지역은 50세 미만에서 67.6%, 50세 이상에서 32.4%로 나타남

<표 9-2> 1960년, 2000년의 도·농간 연령별 인구 구조 비교

(단위 : %)

연령구조	1960년		2000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 - 9세	28.0	29.9	14.7	12.8
10 - 19세	22.2	20.3	15.2	12.8
20 - 29세	17.9	16.4	18.1	13.9
30 - 39세	13.5	11.3	18.8	15.0
40 - 49세	9.0	8.8	15.6	13.0
50 - 59세	5.3	6.6	8.9	11.1
60 - 69세	2.7	4.3	5.5	12.4
70세 이상	1.4	2.4	3.2	8.9
합 계	100.0	100.0	100.0	99.9
총 수	6,999,746	17,992,494	36,642,448	9,342,841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3)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 이농과 도시화

1960-1990년까지의 도시인구 증가요인은 농촌인구의 이농에 기인하였으나, 1990년 이후로는 도시자체의 인구재생산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영향

-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은 도시인구 성장에서 1960년대 후반 도시화의 3/4 가량을 설명하였으며, 1980년대까지도 이농은 도시 인구 성장의 40% 안팎을 차지 하였으나 1990년이후로는 그 영향력이 10% 수준으로 격감
- 이농효과 이외에도 행정구역의 개편조치에 따라 1960년 27개였던 도시 수는 2000년에는 79개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도시의 신설은 도시 인구 증가의 20-30%를 설명하고 있음

<표 9-3>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 1960-2000년

(단위 : 천명, %)

연도	도시인구 증가 (천명)	도시인구 증가 요인(%)			
		자연증가	순이동	권역 확대	시 승격
1960-66	2,709	42.1	40.6	9.3	8.0
1966-70	3,223	26.8	73.2	0.0	0.0
1970-75	3,842	47.2	45.1	2.5	5.2
1975-80	4,638	45.7	39.7	4.1	10.5
1980-85	5,506	44.4	36.8	1.3	17.4
1985-90	5,866	36.3	27.0	6.2	30.4
1990-95	2,727	72.8	7.0	1.3	19.0
1995-00	1,719	62.2	12.9	0.0	24.9

* 주 :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농촌 지역으로 간주함.

* 자료 : 이한순·이우리(1983: 125); 최진호·최병선(1993: 11);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행정문화원. 각년도. 『한국행정구역총람』.

10. 한국의 종교

은기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¹³⁾

1) 종교분포

1985-1995년간 전체 종교중 불교·개신교·천주교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

○ 1985-1995년간 전체 종교중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 남자 : 불교 20.1%→23.3%, 개신교 14.5%→17.7%, 천주교 4.2%→6.0%
- 여자 : 불교 23.5%→26.5%, 개신교 18.2%→21.5%, 천주교 5.3%→7.5%

○ 1985-1995년간 무종교 비율이 남자는 7.3%p 여자는 7.6%p 감소

- 남자 : 59.0% → 51.7%, 여자 : 50.8% → 43.2%

<표 10-1> 7세 이상 인구의 성별 종교분포의 변화, 1985-1995

종교	1985		199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교	20.06 (45.00)	23.52 (55.00)	23.31 (45.46)	26.49 (54.54)
개신교	14.47 (43.28)	18.19 (56.72)	17.69 (43.83)	21.48 (56.17)
천주교	4.16 (43.00)	5.29 (57.00)	5.98 (43.10)	7.48 (56.90)
유교	1.55 (54.14)	1.26 (45.86)	0.55 (55.95)	0.41 (44.05)
원불교	0.23 (44.67)	0.27 (55.33)	0.18 (43.08)	0.23 (56.92)
천도교	0.08 (47.84)	0.08 (52.16)	0.07 (46.85)	0.08 (53.15)
대종교	0.02 (50.51)	0.02 (49.49)	0.02 (44.63)	0.02 (55.37)
대순진리회	0.12 (46.06)	0.13 (53.94)	0.13 (44.81)	0.15 (55.19)
기타	0.33 (44.73)	0.40 (55.27)	0.39 (43.43)	0.48 (56.57)
없음	58.98 (52.68)	50.83 (47.32)	51.68 (53.13)	43.19 (46.87)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각 년도 종교별 성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3) kseum@aks.ac.kr, 031-709-7562(153)

2) 지역별 종교분포

불교는 주로 부산·대구·경북·경남(43.5%), 기독교는 주로 수도권(58.1%)에 분포

○ 불교 인구의 지역별 분포(1995년)를 보면, 서울(18.1%), 부산(14.2%), 경기(13.5%), 경남(13.5%), 대구(7.9%), 경북 7.8%)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서울(31.2%), 경기(20.4%), 인천(6.5%)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표 10-2> 7세 이상 인구의 시도별 종교분포: 1995

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서울	19.57 (18.12)	26.56 (31.24)	8.57 (30.70)	0.27 (13.19)	0.15 (16.78)	0.56 (19.34)	43.92 (21.44)
부산	40.80 (14.24)	10.72 (4.75)	4.58 (5.90)	0.16 (2.93)	0.16 (6.76)	0.75 (9.77)	42.83 (7.88)
대구	35.26 (7.89)	11.52 (3.27)	6.59 (5.45)	0.20 (2.32)	0.07 (1.94)	0.92 (7.67)	45.44 (5.36)
인천	15.95 (3.29)	24.73 (6.48)	9.48 (7.23)	0.28 (3.04)	0.07 (1.82)	0.75 (5.75)	48.73 (5.30)
광주	16.12 (1.83)	22.24 (3.21)	9.43 (3.96)	0.53 (3.15)	0.32 (4.45)	0.61 (2.57)	50.76 (3.04)
대전	25.84 (2.89)	20.70 (2.94)	6.31 (2.61)	0.17 (0.97)	0.19 (2.63)	0.72 (2.99)	46.07 (2.72)
경기	20.10 (13.54)	23.88 (20.42)	7.94 (19.76)	0.44 (15.43)	0.10 (8.14)	0.83 (20.68)	46.70 (16.57)
강원	24.58 (3.30)	16.37 (2.79)	5.32 (2.64)	0.61 (4.28)	0.12 (2.00)	0.58 (2.89)	52.42 (3.71)
충북	25.84 (3.24)	14.92 (2.37)	5.83 (2.70)	0.28 (1.80)	0.11 (1.63)	0.50 (2.34)	52.53 (3.47)
충남	20.95 (3.35)	18.65 (3.79)	4.84 (2.86)	0.99 (8.29)	0.16 (3.19)	0.51 (3.01)	53.90 (4.55)
전북	13.82 (2.38)	25.86 (5.67)	5.91 (3.77)	0.80 (7.19)	1.64 (34.44)	0.57 (3.66)	51.40 (4.67)
전남	15.33 (2.87)	20.41 (4.85)	4.64 (3.21)	1.72 (16.77)	0.36 (8.08)	0.48 (3.33)	57.06 (5.63)
경북	32.90 (7.82)	12.45 (3.76)	3.96 (3.48)	0.83 (10.26)	0.03 (1.00)	0.57 (5.06)	49.25 (6.17)
경남	39.66 (13.53)	9.29 (4.02)	3.56 (4.49)	0.52 (9.29)	0.17 (6.89)	0.75 (9.47)	46.06 (8.28)
제주	36.06 (1.70)	6.95 (0.42)	7.15 (1.24)	0.44 (1.08)	0.04 (0.25)	0.84 (1.48)	48.52 (1.2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시도 구성입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3) 연령별 종교분포

불교는 50대(34.9%), 개신교는 19세(23.0%)미만, 천주교는 40대(7.9%)에서 가장 높은 연령 분포

○ 연령별 종교분포를 보면, 7-19세의 연령층에서는 개신교(23.0%)가 불교(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불교의 비중이 다른 종교보다 높았음

○ 불교는 50대(34.9%), 개신교는 19세(23.0%)미만, 천주교는 40대(7.9%)에서 가장 높은 연령 분포를 나타냄

<표 10-3> 7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종교분포: 1995

연령 나이	19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불 교	17.59 (16.76)	19.37 (15.01)	24.82 (21.57)	31.90 (18.15)	34.85 (14.30)	34.45 (9.22)	30.01 (4.99)
개신교	22.97 (27.78)	18.30 (18.02)	19.91 (21.97)	20.06 (14.50)	16.54 (8.62)	15.72 (5.34)	17.86 (3.77)
천주교	7.13 (25.09)	5.59 (16.01)	6.99 (22.45)	7.90 (16.61)	6.35 (9.63)	6.21 (6.14)	6.63 (4.08)
유 교	0.18 (8.91)	0.27 (10.74)	0.25 (11.31)	0.45 (13.35)	0.97 (20.73)	1.58 (22.05)	1.48 (12.90)
원불교	0.17 (19.97)	0.14 (13.02)	0.17 (18.41)	0.23 (15.90)	0.29 (14.46)	0.34 (11.15)	0.35 (7.08)
천도교	0.06 (19.41)	0.06 (15.38)	0.07 (19.58)	0.07 (13.99)	0.09 (13.11)	0.12 (10.84)	0.14 (7.69)
대종교	0.02 (19.77)	0.02 (15.25)	0.02 (17.51)	0.03 (15.82)	0.03 (15.25)	0.04 (10.73)	0.03 (5.65)
대순진리회	0.11 (18.67)	0.15 (20.77)	0.16 (24.68)	0.15 (15.30)	0.16 (11.29)	0.13 (6.19)	0.11 (3.10)
기 타	0.39 (21.33)	0.36 (15.93)	0.45 (22.60)	0.44 (14.51)	0.48 (11.27)	0.54 (8.34)	0.63 (6.02)
없 음	51.37 (25.79)	55.74 (22.77)	47.16 (21.60)	38.77 (11.63)	40.24 (8.70)	40.87 (5.76)	42.77 (3.7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연령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4) 가구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분포

1995년 종교 일치도는 부부관계에서 88.6%(1995년 기준), 가구구성원간에는 73.2%로 나타남

○ 부부가구의 종교 일치도는 1985년 88.0%에서 1995년 88.6%로 소폭 증가

- 무종교인 가구가 1985년 44.6%에서 1995년 38.9%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는 불교, 개신교 및 천주교의 고른 증가세로 나타남.

○ 가족구성원의 종교 일치도는 1985년 67.7%에서 1995년 73.2%로 나타나 10년전에 비해 가구원의 종교적 동질성이 5.5p%나 증가함

- 불교에서 부부기준 종교 일치도는 2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에서는 16.6%를 차지

- 개신교에서는 부부기준으로 16.7%, 가구구성원기준으로는 14.7%를 차지

<표 10-4> 부부 및 가구구성원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단위 : %)

일치여부	종교 구성	부부		가구 구성원	
		1985년	1995년	1985년	1995년
일치	무	44.6	38.9	40.8	36.2
	불교	23.6	26.0	12.2	16.6
	개신교	13.5	16.7	10.5	14.7
	천주교	4.0	5.7	3.1	4.8
	기타	2.3	1.3	1.1	0.9
불일치	무+ 불교	4.6	3.9	15.4	13.0
	무+개신교	4.2	4.3	9.1	7.7
	무+천주교	1.5	2.1	2.5	3.0
	기타	1.7	1.1	5.3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1. 한국의 정보화

최순(동아대학교)¹⁴⁾

1)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상태

2000년에 6세이상 인구중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33.3%에 달함

○ 연령층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은 학생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6-29세의 계급이 다른 연령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6-19세 연령계급에서는 10명 중 8.4명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있으며, 이중 6명 이상은 매일 컴퓨터 사용
- 그러나 컴퓨터세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56.3%)과 도시형태를 가진 읍부(44.6%)에 비해 순수 농촌지역인 면부(28.8%)는 매우 낮게 나타나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존재

<표 11-1> 인구특성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 (단위 : %)

인구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
거 주 지	동(시부)	56.3	36.6	46.4	28.7
	읍	44.6	28.0	34.4	19.8
	면	28.8	16.5	20.6	10.1
가구특성	비 농어가	55.2	35.7	45.2	27.7
	농어가	24.6	13.9	17.8	8.7
성 별	남자	58.5	40.3	47.9	30.9
	여자	45.6	26.7	36.8	20.7
연 령	6-19	84.3	60.6	65.6	43.1
	20-29	76.5	52.1	68.8	44.8
	30-39	57.0	32.6	45.8	25.4
	40-49	36.6	19.0	29.1	14.6
	50-59	16.2	7.9	12.1	5.8
	60+	3.3	1.5	2.2	1.0
6세 이상 총 인구		51.9	33.3	42.2	25.7

¹⁴⁾ schoi@mail.donga.ac.kr

2) 교육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상태

학력별 컴퓨터 사용 경험은 중학 37.1%, 고등 51.0%, 대학교 84.6%로 나타남

○ 학력별로 정보화 격차가 나타남

- 컴퓨터 사용경험은 무학 9.4%, 중학교 37.1%에 불과하나 대학교의 경우 84.6%, 대학원 91.9%를 차지, 학력별 정보화의 편차가 크게 발생
- 학생인구를 제외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비교하면 중졸이하의 경우 컴퓨터 사용능력 7.0%, 인터넷 사용능력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대졸(초대졸 포함)은 컴퓨터 사용능력 79.0%, 인터넷 사용능력 69.8%를 나타내 학력별 정보화의 편차가 큼

<표 11-2>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

(단위 : %)

교육수준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
학생+일반기준				
무 학	9.4	5.1	3.5	1.7
초등학교	39.3	27.4	25.7	15.6
중 학 교	37.1	25.3	30.2	19.6
고등학교	51.0	27.0	40.7	20.9
대학(4년제미만)	80.0	52.5	69.8	42.9
대 학 교	84.6	62.0	77.4	53.9
대 학 원	91.9	74.6	86.7	65.2
일반인구기준				
중졸이하	7.0	2.7	3.7	1.3
고등학교	44.2	20.7	33.8	15.3
초대-대학	79.0	53.1	69.8	44.1
대학원	90.6	72.7	85.2	63.0

3) 직업별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상태

관리직, 준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80%정도가 컴퓨터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농·림·어업 종사자는 6.7%만이 컴퓨터 사용 경험이 있음

○ 컴퓨터 사용능력은 직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업과 컴퓨터 사용능력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직, 준 전문직 및 사무직종사자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10명중 5명정도는 매일 인터넷을 사용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6.7%만이 컴퓨터를 사용하며, 인터넷은 4.2%만이 사용

<표 11-3>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

직업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전문관리직	82.8	61.7	74.6	51.4
준전문직	79.8	56.4	70.6	46.7
사무직종사자	81.0	60.6	71.4	48.6
서비스종사자	33.5	16.7	26.7	12.8
판매종사자	44.6	23.3	34.8	16.8
농·림·어업	6.7	2.1	4.2	1.4
기능직종사자	37.5	17.4	27.8	12.9
단순노무직	20.9	8.9	15.1	6.5

12. 장래 가구 추계¹⁵⁾

김형석(통계청)¹⁶⁾

1) 총가구수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2000년 14,609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18,158천 가구로 늘어 날 전망

○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증가폭은 점점 작아 질 것으로 전망

- 가구와 인구의 관계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까지는 물론, 지금처럼 가구의 분화, 1인가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가구는 상당 기간 증가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2000년 14,609천 가구에서 2010년에는 16,864천 가구로 늘고, 2020년에는 18,158천 가구에 달할 전망

<표 12-1> 가구수 추이

(단위 : 천 가구, 천 명, %)

	2000	2005	2010	2015	2020
○ 가구 ¹⁾	14,609	15,789	16,864	17,571	18,158
(증가) ²⁾	1,463	1,180	1,075	707	587
(연평균증가율) ³⁾	2.13	1.57	1.33	0.83	0.66
○ 일반가구 인구 ⁴⁾	45,427	46,978	48,181	48,849	49,194
(증가) ²⁾	1,561	1,550	1,204	667	345
(연평균증가율) ³⁾	0.70	0.67	0.51	0.28	0.14

주: 1) 200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자료로서 누락분이 보정된 자료이며, 2005-2020년은 추계자료임

2)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순증가

3)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4) 외국인, 특별조사구, 집단시설 인구 제외

15)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으로 추계

16) hskim@nso.go.kr, 042-481-2242

2)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별 가구

여성(18.5%→21.9%)과 노인(12.1%→21.0%)들의 가구주 비중이 크게 증가

○ 2000-2020년중 가구주의 노령화 및 여성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전체의 12.1%(2000) → 21.0%(2020) 증가
- 여자 가구주는 18.5%(2000) → 21.9%(2020) 증가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자녀와의 동거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표 12-2> 가구주의 성 및 연령 계층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 65세 미만	12,838 (87.9)	13,518 (85.6)	14,100 (83.6)	14,349 (81.7)	14,350 (79.0)
- 65세 이상	1,771 (12.1)	2,271 (14.4)	2,764 (16.4)	3,222 (18.3)	3,808 (21.0)
○ 남 자	11,901 (81.5)	12,713 (80.5)	13,408 (79.5)	13,840 (78.8)	14,179 (78.1)
- 65세 미만	10,795 (92.4)	11,272 (90.9)	11,665 (89.7)	11,800 (88.4)	11,750 (86.6)
- 65세 이상	1,106 (7.6)	1,441 (9.1)	1,743 (10.3)	2,040 (11.6)	2,429 (13.4)
○ 여 자	2,708 (18.5)	3,076 (19.5)	3,455 (20.5)	3,730 (21.2)	3,979 (21.9)
- 65세 미만	2,043 (95.5)	2,246 (94.7)	2,434 (93.9)	2,548 (93.3)	2,600 (92.4)
- 65세 이상	665 (4.5)	830 (5.3)	1,021 (6.1)	1,182 (6.7)	1,379 (7.6)

주 : “계, 남자, 여자” 란의 구성비는 전체가구, 연령계층 란의 구성비는 각각 “계, 남자, 여자”에 대한 구성비임

3) 가구구성별 가구 및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3세대이상 확대가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부+자녀 가구」는 2000년에는 전체 가구중 48.2%(7,035천 가구)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41.5%(7,537천 가구)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 전망
- 「3세대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2000년에 총 1,223천 가구(8.4%)에서 2020년에는 852천 가구(4.7%)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부부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중 비중이 12.3% (1,802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18.9%(3,429천 가구)로 6.6%p가 증가 예상
 - 이는 자녀가 모두 출가한 “빈둥지” 시기의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890천 가구)에 주로 기인
- 「1인 가구(2000년 15.5%, 2020년 21.5%)」도 6.0%p 증가
 - 호주(2001년, 23%), 독일(2000년, 36%), 미국(2000년, 26%), 일본(2000년 28%)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 연령별 분포(2000년)를 보면, 25-29세가 14.3%로 가장 높고, 이후 50-54세(5.3%)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65-69세(8.4%)에 두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는 패턴
- 핵가족의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amily)도 앞으로 20년간(2000년: 68.3%, 2020년: 68.2%)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감소

-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소가족화가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전망
 - 호주(2001년) 2.6명, 미국(2000년) 2.6명, 일본(2000년) 2.7명 수준에 도달

<표 12-3> 가구구성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가구구성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부부	1,802	12.3	2,185	13.8	2,597	15.4	2,987	17.0	3,429	18.9
부부+자녀	7,035	48.2	7,435	47.1	7,666	45.5	7,688	43.8	7,537	41.5
편부+자녀	225	1.5	242	1.5	266	1.6	279	1.6	284	1.6
편모+자녀	923	6.3	1,005	6.4	1,080	6.4	1,112	6.3	1,125	6.2
(핵가족) 1)	9,984	68.3	10,868	68.8	11,609	68.8	12,066	68.7	12,375	68.2
3세대 이상	1,223	8.4	1,152	7.3	1,073	6.4	964	5.5	852	4.7
1인 가구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비혈연	163	1.1	160	1.0	150	0.9	143	0.8	136	0.7
기타	969	6.6	933	5.9	922	5.5	905	5.2	898	4.9

주 : 1) 「부부 가구」, 「부부+자녀(미혼) 가구」, 「편부+자녀(미혼) 가구」, 「편모+자녀(미혼) 가구」의 합계

<표 12-4> 가구원수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명)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1인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2	2,787	19.1	3,280	20.8	3,781	22.4	4,220	24.0	4,692	25.8
3	3,049	20.9	3,314	21.0	3,491	20.7	3,557	20.2	3,546	19.5
4	4,540	31.1	4,835	30.6	4,994	29.6	5,008	28.5	4,909	27.0
5	1,473	10.1	1,332	8.4	1,209	7.2	1,078	6.1	949	5.2
6	352	2.4	260	1.6	212	1.3	167	1.0	133	0.7
7인 이상	137	0.9	92	0.6	66	0.4	48	0.3	32	0.2
평균	3.1		3.0		2.9		2.8		2.7	

13. 한국의 인구정책

박상태(서강대학교)17)

※ 이 장에서 인구정책이라 함은 인구의 구조(크기, 분포, 구성)와 변화과정(출생, 사망,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함

1) 인구정책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규모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

- 우리 나라가 지난 50년간 인구의 규모와 구조상 큰 변화를 겪었으며, 단기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형의 낮은 수준으로 저하된 것은 전 세계적 유명
 - 이는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시행된 정부 정책과 민간단체의 노력 그리고 기혼부부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었기 때문
 - 우리 나라는 유럽, 북미와 일본 등 선진국들과 더불어 인구학적 선진국으로 분류
- 인류는 2050년쯤 인구변천 단계를 모두 거치고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률도 낮아져 인구증가율이 미미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UN)되는데, 이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현상
-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냐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로서 물질적 수준과 복지적(사회적)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음
 - 즉 인구나 경제성장, 인구나 환경, 인구나 사회발전 등 여러 가지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
 -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

17) lspark@ccs.sogang.ac.kr, 031-913-9581

-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실행은 장래문제 해결에 큰 도움
 - 60년대 초반 국민의 교육수준이 현재에 비해 매우 낮고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시기의 정부 가족계획 정책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
-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 규모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한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 유지가 필수적

2) 저출산- 새로운 사회문제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과거 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들였던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 크게 들것으로 예상

- 지난 10년 이상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어 문제
- 2001년 현재 지구상 인구 중 40% 이상의 인구가 재생산 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거주
 -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20-30년 이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될 가능성
-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가 미미
 -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을 전후한 독일, 이태리,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와 당시 벌써 출산률이 매우 낮았던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후 신 출산장려주의 정책과 프로그램 등
- 현재 우리 사회에는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불리한 조건

- 만혼, 독신, 이혼, 별거 등 혼인력을 낮추는 혼인양식이 제도화
 - 다 자녀 기피현상과 더불어 소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
-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는 국민 각자 적당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
-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자녀는 모두의 자산이기에 어린이에 대해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가치관의 공유임
- 총 출산율이 1.3명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남성 육아휴직 권장,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 및 1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까지도 고려
- 현재 세계적으로 저 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가시적인 정책들
- 첫째, 성장한 자녀가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
 - 둘째, 자녀를 부양한 후 퇴직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수를 정해주는 방안
 - 셋째, 경제적인 인센티브로서는 미흡할 경우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

3) 사망률 및 보건정책

예방의학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함

- 21세기를 맞아 인구정책의 전환점에 선 우리 나라에 있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의학 못지 않게 예방의학에 많은 자원을 배분이 필요

- 다음으로 출산 전후에 있는 모성집단과 영유아집단 그리고 노년인구 등 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더욱 더 요구
- 전 인구를 위한 영양학적 정책과 환경개선, 그리고 기존의 전염병은 물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예방 등이 당면한 주요과제로 부상
- 보건정책의 수립에는 특히 인구학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며 필수적
 - 우리 나라는 성별 연령별 사망에 대한 자료 등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좀 더 많은 자원의 배분이 필요
 - 특히 우리 나라가 인구통계 분야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사망 및 유병 자료의 확보가 필요

4) 연령구조의 노령화

노령화현상에 대한 대처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지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클 수 있음

- 인구가 극도로 노령화할 경우,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감소
 -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
- 한편,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령화 문제는 인구학자들이 지적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사회적 문제는 될지언정 생산성이나 저축율의 감소 등 경제적 면에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
-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 가족에서의 역할 확대, 국가의 정책구성과 NGO 국제기구의 역할은 물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

5) 성구조와 성평등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열악

- 출생아에 대한 성 선호(남아선호를 말함) 문제가 최근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출생시 성비가 자연적 수준으로 회복될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이것은 특히 둘째와 셋째 아이의 경우 애매
- 성 평등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와도 관계
 - 계속되는 이혼율의 상승세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불안정과 해체를 촉진하고 출산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
- 1974년 UN에서의 회의(The World Plan of Action)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높은 우선권을 주자는 결정을 채택한 이래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확인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성관련개발지수(GDI) 및 성권력지수(GEM) 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열악

6) 국제이민

1980년대 이후는 노동 수입국

-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방글라데쉬,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과 더불어 주요 노동자 수출국
 - 그러나 1980년대이후는 주요 수입국이 되어 방글라데쉬,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와 조선족계 중국 노동자들이 유입
- 정부와 민간에서 필요에 의해 노동이민을 받아 들였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우리 사회 성원으로서의 통합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음

-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모두 33만 7천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만 6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 정부는 2002년 7월17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2002년 7월 18일 동아, 중앙, 조선일보 참조)
 -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
 -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해외동포를 고려한 점과 필요인력의 공급이란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
 - 그러나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 조정하는가 등이 정책 성공여부를 좌우

<결론>

- 정부는 1996년 35년간 시행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
 -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인구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
 -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화, 세대간의 갈등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건강지수의 향상 등
- 또한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표 13-1> 동아시아 4개국의 인구학적 및 성 관련 특성, 1999

연도	일본	홍콩	한국	중국
인구수(백만)	126.8	6.7	46.4	1264.8
도시인구(%)	78.6	100.0	81.1	31.6
연령집단(%)				
(0-14세)	14.9	16.8	21.2	25.3
(65세이상)	16.7	10.4	6.8	6.7
총출산율				
(1995-2000)	1.4	1.2	1.5	1.8
순위 (HDI)	9	24	27	87
(GDI)	11	23	29	76
(GEM)	31	N.A.	61	N.A.
평균수명				
여성	84.1	82.2	78.4	72.5
남성	77.3	76.7	70.9	68.3
문자해독율%(15+)				
여성	99+	89.7	96.2	75.5
남성	99+	96.4	99.1	91.2
a) 대남성수입비	0.43	n.a.	0.45	n.a.
b) 여성 국회의원 수 (%)	10.8	n.a.	5.9	21.8
c) 여성 상위직 종사자 (%)	9	22	5	n.a.
d) 여성 전문적 기술직 종사자(%)	44	38	31	n.a.

- a)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수입 비율 추계.
- b) 국회내의 여성 의석 비율.
- c) 여성의 입법부, 행정부의 상위직 종사자 및 관리직 종사자 비율.
- d) 여성 전문적, 기술직 종사자 비율.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용어 해설 : 여성의 상대적지위 비교지수】

- 인간개발지수(HDI) : 출생시의 평균수명을 이용한 그나라의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독률과 취학연령군의 취학비율을 이용한 교육성취도, 1인당 국내총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한 생활수준 등의 세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
- 성관련 개발지수(GDI) : 인간개발지수(HDI) 지수중 남성과 여성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하여 조정한 것
- 성권력지수(GEM) : 정치·경제분야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권한을 알아보기 위한 것, 정치참여와 결정권의 측정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경제참여와 결정권의 측정은 행정관리직에서의 비율 및 전문적-기술적 직업에서의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

Ⅲ. 한국의 주택

14. 한국인의 경제, 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윤주현(국토연구원)¹⁸⁾

주택 200만호 공급으로 주택재고의 획기적 확대와 함께 주택부족문제가 완화, 그러나 자가점유율 증가는 정체

- 우리나라의 총주택수는 1970년 443만호였는데, 2000년에는 1,147만호로 30년만에 2.6배로 증대
 - 이는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1988~1992년)의 성공적 추진에 기인
 - 동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도 1997년까지 이어져 사업승인 기준으로 주택 건설물량이 연간 60~70만 호 수준으로 확대
-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970년에는 79.5%에 달하였으나 1985년까지 71.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구수의 증가에 부응하지 못한 주택 공급에 기인
 -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에 힘입어 주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증대되기 시작하여 1995년 86.0%, 2000년 96.2%로 증가
-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거주율이 1970년의 71.7% 이후 1990년의 49.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에는 53.3%로 급증하였는데,
 - 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다가 주택200만호계획 완료 이후 내집 마련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냄
 -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자가거주율이 54.2%로서 1995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18) jhyoon@krihs.re.kr, 031-380-0487

- 이는 주택보급률 100% 근접과 더불어 주택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주거 수준제고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임을 의미
- 국제비교에서도 선진국의 자가거주율이 60%를 상회하기가 어려움

1인가구 및 노인가구가 새로운 주택정책 대상계층으로 대두

- 1인가구의 수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6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의 15.5%를 차지
 - 1인가구의 구성을 연령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면지역은 노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
- 2000년 1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은 33.7%로 일반가구(54.2%)보다 낮음
 - 1인가구는 주로(71%) 단독주택에 거주
- 노인가구(65세 이상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는 2.1%였으나 2000년에는 8.1%에 달함
- 노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 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자가 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으나 주거시설수준은 낮음
 -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점차 일반가구의 주거수준과 근접해 가는데 반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하므로, 집은 가지고 있으나 주거수준이 낮고 경제력도 낮아진 노령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하여, 또한 주거수준이 평균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여 주택문제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움
 - 1인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 자가율 증대의 한계로 임대주택정책의 중요성 대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방안

- 주택정책을 양적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시 주거현황, 가구상황, 주택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적 기반 확충이 시급
 - 통계청,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의 협조 필요

15. 주택재고 및 空家 분석

김호철(단국대학교)19)

1) 주택재고 및 구성변화

지난 30년간 약 660만호의 주택이 증가

○ 1970년-2000년간 농촌지역의 주택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주택수가 대폭 증가

- 절대적으로 늘어난 주택수는 약 660만호로 30년간 2.5배에 육박하는 주택수의 증가

1970년 아파트의 비율은 0.8%인 3만 3천호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58배 증가하여 523만호가 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7.7%로 급증

○ 30년간 전국의 유형별 주택수와 관련해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급증

- 특히 1970년 아파트의 비율은 0.8%인 3만 3천호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58배 증가하여 523만호가 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7.7%로 급증하여 한국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

- 지난 30년간 도시특성이 강한 동부의 주택재고에서 나타난 변화는 아파트의 급증으로 주택수에서 커다란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

· 아파트는 1970년에 2.25%에서 2000년에 57.5%로 급증

19) khc2000@dankook.ac.kr, 02-709-2458

- 농촌의 특성이 강한 면부에서는 단독주택만이 100만호 이상의 감소를 보여 주택재고의 절대수가 감소
 - 그러나, 1970년에 단독주택은 전체주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03%로 가장 높음
- 주택유형별 규모변화에서 단독주택은 1980년 이후 19평 미만 주택의 주택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낸 반면, 19평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아파트는 모든 평형구분에서 양적으로는 큰 증가를 보였고, 특히 19평에서 29평 미만의 아파트가 많이 증가
 - 9-19평도 비율에 있어서는 감소추세이나 공급된 물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립/다세대주택에서는 9평미만의 주택이 크게 감소했으나, 나머지 상위규모에서는 전부 증가

2) 멸실주택의 추정

지난 1995-2000년중에는 주택이 751천호 멸실

-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면부에서 많은 노후주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택이 멸실
 - 도시의 특성이 강한 동부에서 1990-1995년사이에 멸실주택수가 급증
 - 수도권 지역의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촉진과 도시지역에서 노후연립주택 등이 재건축됨으로써 멸실주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

<표 15-1> 지역간 멸실 주택수

	85-90년 멸실주택수 (85년대비)	멸실률 (%)	90-95년 멸실주택수 (90년대비)	멸실률 (%)	95-00년 멸실주택수 (95년대비)	멸실률 (%)
전국	636,909	10.43%	1,074,594	15.01%	751,412	8.16%
동부	97,365	2.91%	455,169	9.80%	279,638	4.26%
읍부	225,492	28.30%	122,240	17.41%	116,131	13.64%
면부	314,052	16.04%	497,185	27.44%	355,643	19.86%

3) 공가의 변화추이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空家(빈집)는 513천호로 공가율은 4.5%

○ 도시보다 농촌에서 공가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농민이 도시로 이주 또는 사망한 결과로 짐작되며, 또한 주택수요가 적은 농촌에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된 것으로 추정
- 면부 지역에서는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공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행정구역별로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보다 농촌지역이 포함되는 도지역이 공가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높은 주택보급률을 가진 지역은 주택수요가 적어 공가의 발생률이 높아 졌음

<표 15-2> 주택유형별 공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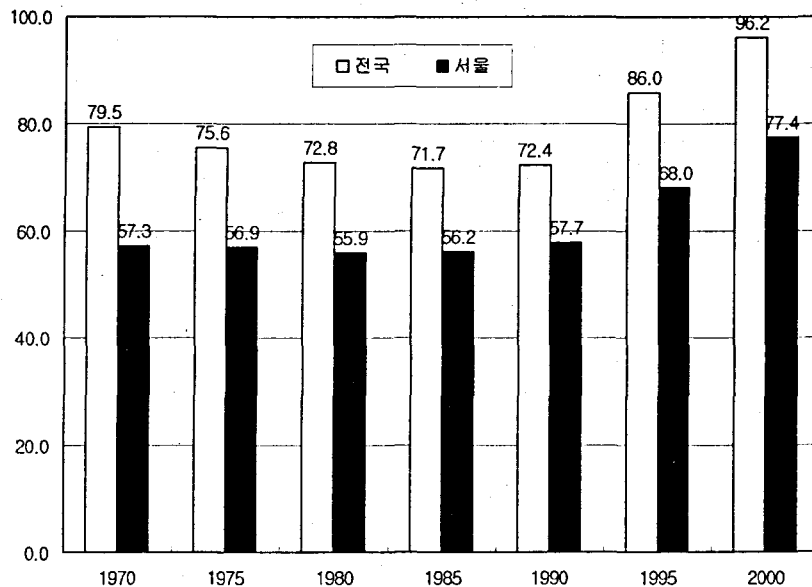
		1995공가	공가율(%)	2000공가	공가율(%)
단독주택	전국	152,997	3.41	199,717	4.68
	동부	31,502	1.41	51,360	2.41
	읍부	22,162	3.93	28,376	5.33
	면부	99,333	5.90	119,981	7.46
아파트	전국	155,356	4.30	248,509	4.53
	동부	129,759	3.94	173,807	3.59
	읍부	13,150	6.66	34,079	8.44
	면부	12,447	10.50	40,623	17.57
연립주택	전국	34,435	4.48	36,815	4.33
	동부	26,126	3.97	24,893	3.48
	읍부	4,673	6.59	6,336	7.81
	면부	3,636	9.31	5,586	10.68
다세대주택	전국	17,005	4.81	19,119	4.05
	동부	14,341	4.43	15,347	3.53
	읍부	1,001	7.22	1,652	8.17
	면부	1,663	10.62	2,120	12.05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국	5,673	1.63	8,899	2.22
	동부	3,364	1.35	4,880	1.81
	읍부	903	1.92	1,401	2.47
	면부	1,406	2.73	2,618	3.45
전체	전국	365,466	3.82	513,059	4.47
	동부	205,092	3.03	270,287	3.22
	읍부	41,889	4.69	71,844	6.57
	면부	118,485	6.21	170,928	8.61

16. 주택보급률의 변화

윤주현(국토연구원)²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85년의 56.2%에서 2000년에는 77.4%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주택부족률이 23% 정도

- 주택보급률이란 어느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 지표
-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71.7%까지 낮아졌던 주택보급률이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힘입어 1995년에는 86%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96.2%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주택보급률이 15년만에 25%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나타냄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985년의 56.2%에서 2000년에는 77.4%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주택부족률이 2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그림 16-1> 주택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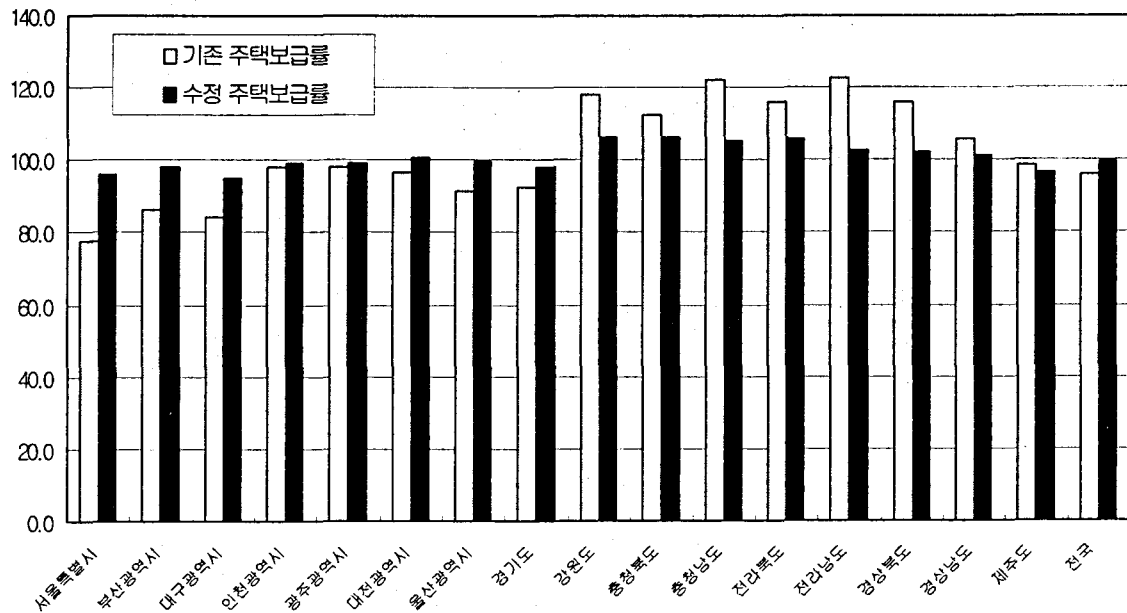
20) jhyoon@krihs.re.kr, 031-380-0308

- 2000년 현재 시도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원, 충청북, 전남북, 경남북 등의 주택보급률이 100~120%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 대구, 부산의 주택 보급률이 90%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절대적인 주택재고의 부족문제는 3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1990년대의 주택대량공급정책이 크게 기여

수정 주택보급률

- 기존의 주택보급률은 소유 및 매매단위로서의 주택수를 혈연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는데, 가구 및 주택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가구구성에 있어서 1인 단독가구 및 2인가구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인 가구의 증대도 나타나고 있고
-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다가구주택이 등장하고 오피스텔이 또 다른 거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가구개념은 일반가구(혈연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 주택개념은 센서스상 주택 정의에서 소유단위를 거주단위로 수정하고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 이용하되 화장실 요건을 첨가
 - 즉,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가진 영구건물을 주택으로 정의
- 가구와 주택의 개념을 수정한 결과 2000년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96.2%에서 99.4%로 증대

-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77.4%에서 96.0%로, 부산은 기존 86.6%에서 97.9%로 증가폭이 크며, 전남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122.6%에서 102.9%로, 충남은 기존의 122.3%에서 105.2%로 낮아졌음
- 특기할 것은 대구 및 제주의 주택보급률이 서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
- 이렇듯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수정된 개념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도시지역은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100% 안팎으로 근접한 상황임



<그림 16-2> 주택보급률 산정결과의 비교(2000년)

17. 한국인의 주거환경 수준

김재익(계명대학교)²¹⁾

1990년 이후 도시지역은 자가점유율이 상승하고 임차가구율은 하락

-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는 도시지역의 자가점유율이 대폭 낮아졌음
 - 그리고 주택수요가 누적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중되었음
 - 1990년 이후의 주택의 대량공급정책의 결과 도시지역은 『자가점유율 상승-임차가구율 하락』
 - 농어촌지역은 전국추세와는 반대로 『자가점유율 하락-임차가구율 상승』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주택공급물량에 비해서 자가점유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2000년 방당 인원수는 1.0이하로 평균적으로 방수가 사람보다 많음

- 방당 인원수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르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모든 유형에서 방당 인원수가 1.0 이하로서 평균적으로 방수가 사람수 보다 많음
 - 이것은 아파트가 주도해 왔으며, 도시지역일수록 주거밀도가 높기 나타나는 가운데 도농간의 방당 인원수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어왔음

21) kji@kmu.ac.kr, 053-580-5278

〈표 17-1〉 방당 인원수의 변화추이(전국)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2.32	2.25	2.10	1.87	1.48	1.08	0.92
단독	2.30	2.24	2.14	1.95	1.62	1.15	0.91
아파트	2.55	1.94	1.48	1.31	1.06	0.96	0.92
연립/다세대	2.78	2.74	2.00	1.73	1.30	1.03	0.93
기타	2.60	2.52	2.31	2.21	1.77	1.30	1.01
주택			2.10	1.87	1.48	1.08	0.92
주택이외			2.56	2.27	1.92	1.44	1.14

○ 가구당 방수

- 가구당 방수는 농어촌지역의 가구당 방수가 도시지역보다 많다가 가구당 방수가 지역구분없이 많아지면서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어 왔고
- 2000년에는 도시지역 거주가구의 방수가 농어촌보다 많아졌음

〈표 17-2〉 도농별 가구당 방수의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2.32	2.21	2.12	2.16	2.49	3.09	3.39
동부	1.94	1.90	1.98	2.07	2.49	3.12	3.39
읍부	2.28	2.25	2.14	2.18	2.49	3.05	3.45
면부	2.66	2.61	2.39	2.40	2.47	2.92	3.34
도시	2.00	2.38	2.01	2.10	2.49	3.11	3.40

○ 가구당 주거면적

- 우리나라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
- 가구당 주거면적은 1975년에는 전국기준으로 41.4m² 이었으나 2000년에는 63.1m² 로서 52.4% 증가
- 토지이용집약도가 높은 도시지역(동부)의 주거면적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남

- 그러나 1975년과 2000년 사이의 증가율은 동부가 71.2%, 읍·면부가 47.9%로서 동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17-3〉 가구당 주거면적

(단위 m²)

	전국	동부	읍·면부
1975	41.4	35.8	47.2
1980	45.8	41.1	52.5
1985	46.4	44.5	50.1
1990	51.0	48.3	58.7
1995	58.6	56.5	65.9
2000	63.1	61.3	69.8

○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은 동부와 읍·면부의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은 1975년도에 전국기준으로 8.2m²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20.2m²로서 146.3% 증가
- 이 증가율은 가구당 주거면적의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가구기준보다 인구기준으로 주거밀도가 더 빠른 속도로 개선

〈표 17-4〉 1인당 주거면적

(단위 m²)

	전국	동부	읍·면부
1975	8.2	7.4	9.0
1980	10.1	9.3	11.1
1985	11.3	11.0	12.0
1990	13.8	13.0	15.9
1995	17.2	16.4	20.5
2000	20.2	19.2	23.1

주거시설 비율(2000년) : 입식부엌 94.3%, 수세식화장실 87.0%, 목욕시설 87.4%, 상수도 87.0%

○ 주거시설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시설, 난방방식 등 다섯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

- 개선속도가 매우 빠르고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거의 100%의 보급률을 보임
- 한편 상수도, 수세식화장실 등은 농어촌지역에서 시설개선이 요구

〈표 17-5〉 도농별 입식부엌 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18.2%	34.6%	52.4%	84.1%	94.3%
동부	34.8%	55.0%	60.7%	87.1%	95.2%
읍부	7.6%	19.3%	41.1%	79.8%	92.3%
면부	2.5%	5.8%	22.1%	70.9%	87.5%

〈표 17-6〉 수세식 화장실 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18.4%	33.1%	51.3%	75.1%	87.0%
동부	37.0%	54.4%	64.0%	84.2%	93.0%
읍부	5.5%	15.2%	26.9%	57.1%	76.3%
면부	1.3%	3.9%	8.0%	36.8%	58.2%

〈표 17-7〉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10.0%	20.0%	34.1%	74.8%	87.4%
동부	20.0%	32.8%	40.9%	79.0%	90.2%
읍부	3.2%	9.5%	23.0%	66.2%	82.6%
면부	0.7%	2.3%	10.1%	57.7%	74.1%

〈표 17-8〉 상수도시설이 있는 가구비율

	1980	1990	2000
전국	51.2%	76.6%	87.0%
동부	83.1%	93.1%	97.9%
읍부	41.7%	60.1%	76.7%
면부	17.9%	13.3%	33.2%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이제 공급된 주택이 누구에게 돌아 가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주택분배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

- 주택보급율은 96.2%에 이르고 있으나 자가점유율은 전국기준으로 54.2%에 그치고 있음

○ 둘째,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택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은 주거밀도와 시설 등의 양적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이미 충족하여 질적인 수준향상을 도모할 시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

18. 가구특성별 주거수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²²⁾

1) 1인가구 증가와 주거수준 변화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점유형태나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

- 1인가구수는 1975년에서 2000년 사이에 7.92배 증가했고, 일반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여 1975년 4.2%이던 것이 2000년에는 15.5%로 증가
 - 동부의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11.5%로 증가했고, 1인가구 증가를 주도
 - 면부는 가구수 감소 경향 속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여 지역내 일반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3.8%에서 2000년 20.9%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
- 1인가구는 미혼율 증가, 이혼율 증가, 노인인구 증가, 부모 세대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가구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일반화되고 있음.
- 1인가구의 증가와 구성 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증가
 - 하지만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점유형태나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그 중에서 도시지역,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
 - 1인가구의 주거 수준은 시설 등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지만, 점유 안정성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22) kocer@chollian.net, 02-738-4292

2) 노인가구의 증가와 노인주거정책

노인 1인가구는 자가거주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며 점차 주거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

○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빨리 노인가구가 증가

- 노인 1인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0.9%에서 4.0%로, 노인부부가구는 1.2%에서 4.1%로 증가
-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거주의 비중이 높지만, 그 중에서 노인 1인가구는 자가거주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점차 주거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
- 특히 도시지역 노인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은 정책적 과제로 대두
- 노인가구의 주거시설은 전체 주택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일반가구와의 격차는 아직도 주목할 필요
- 따라서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동성에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주택과 주변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따라서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가족생애주기 특성 변화와 주거정책

노인은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 보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집단

- 가족생애주기는 1인가구 및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중심의 고려가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음
 - 가구주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를 구분해 볼 때, 전 단계에서 시설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점유 안정성은 다소 낮아지고 있음
- 특히 정책적으로 주목할 집단은 청년기와 노년기인 바, 청년기는 시설 수준이나 주거 안정성 모두 열악한 처지이며, 융자제도 등을 통한 부담능력 지원 등이 필요
 - 노년기는 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 두 집단 모두 빈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 보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집단

19. 주거빈곤 가구의 특성

박신영(대한주택공사)²³⁾

1) 전교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중 사용방수 기준 미달 가구

주거빈곤가구중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1980년 전체가구의 22.4%인 1,785천가구였으나, 2000년에는 0.7%인 10만가구로 감소

- 전교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0-26호)중 사용방(실)수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주거빈곤가구로 정의할 때,
 - 1980년 전체가구의 58.8%인 4,686천 가구가 주거빈곤가구였음에 비해 2000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가구의 2.6%인 372천 가구로 크게 감소
 - 주거빈곤가구중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1980년 전체가구의 22.4%인 1,785천가구였으나, 2000년에는 0.7%인 10만가구로 감소
- 주거빈곤가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이후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오히려 주거빈곤가구가 늘어났으며, 마찬가지로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숫적으로 증가
 -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시행된 1990년 이후부터임

2)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2000년을 기준으로 주거빈곤가구의 90% 이상이 2세대 이상의 가구이며, 80%이상이 가구원수는 4인 이상이고, 45% 정도가 월세

<학력>

- 주거빈곤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중퇴포함)의 비율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변함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23) sypark@knhc.co.kr, 031-738-4640

- 2000년 현재 주거빈곤가구중 고등학교 학력인 가구주의 비율은 51.6%로 일반 가구의 고등학교 학력인 가구주 비율 36.7%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단칸방에 3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주의 고등학교 학력 가구주의 비율은 55.6%에 달함
- 그러나 주거빈곤가구중 초대졸 이상 학력인 가구주의 비율은 17.0%로 일반 가구의 같은 비율 29.8%에 비하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가구원수와 가족구성형태>

- 일반적인 가구중 4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비해 주거빈곤가구중 4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주거빈곤가구의 90% 이상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이상 가구이기 때문
 - 일반가구의 경우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2000년 현재 68.9%에 불과

<거주유형과 거처의 종류>

- 주거빈곤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율이 1980년 52.4%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 20.9%에 불과
 - 반면에 월세 거주율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45.6%가 월세로 거주
 - 특히, 3인 이상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율은 5.6%에 불과하며, 월세 거주가구의 비율은 62.4%에 달함
 - 주거빈곤가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가거주인 가구가 주거빈곤가구에서 줄어드는 것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구일수록 주거빈곤상태를 탈피했기 때문

- 주거빈곤가구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도 되지 않으며, 7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이 아닌 비거주용 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 거주

<취업과 직업>

- 198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서 주거빈곤가구의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높으나, 가구주의 50%가 생산직 또는 농림어업 및 광업에 종사
 - 그런데 농림어업 및 광업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주거빈곤가구에서는 해당직종 종사자가 1980년 5.1%에서 2000년 24.5%로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남
 - 이는 다른 직업 종사자가 주거빈곤상태에서 탈피하고 있음에도 해당직종 종사자의 주거빈곤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

<주거빈곤의 원인>

- 2000년을 기준으로 주거빈곤가구의 90% 이상이 2세대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며, 가구원수는 4인 이상인 경우가 80%를 상회
 - 가장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0%를 상회하나 소득에 비해서 가족수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에 부합되는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거빈곤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침실수와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사용기준으로 본 주거빈곤가구

침실수와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사용기준으로 본 2000년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14,312천가구)의 23.1%인 3,306천가구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침실만을 사용방수로 하고, 시설(부엌, 화장실)의 전용여부를 기준으로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을 파악한 바,

-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14,312천가구)의 23.1%인 3,306천가구